VOL.117
대한유도회 회보 2018 봄·여름호
judo.sports.or.kr
ISSN 2586-1255

柔道

유도를
사랑하는
사람들

특집
조재기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

유도 영재육성 현장을 가다
각종 국제대회서 한국 유도 맹위

인터뷰
전남 유도회 임종안 회장

명문팀
순천시청 여자유도단

유도장 탐방
순천 신대 우림체육관

의학 에세이
“부상 치료보다 예방”

대한유도회
Korea Judo Association

ADIDAS JUDO

adidas

#HERETOCREATE

유도 공식 대리점
야와라 스포츠
031.455.0808

acskorea.co.kr
adidas combatsports korea
facebook.com/acskorea
02.3019.3841

JEWOO INTERNATIONAL CO., LTD.
서울 서초구 명달로 65 일흥스포타운 4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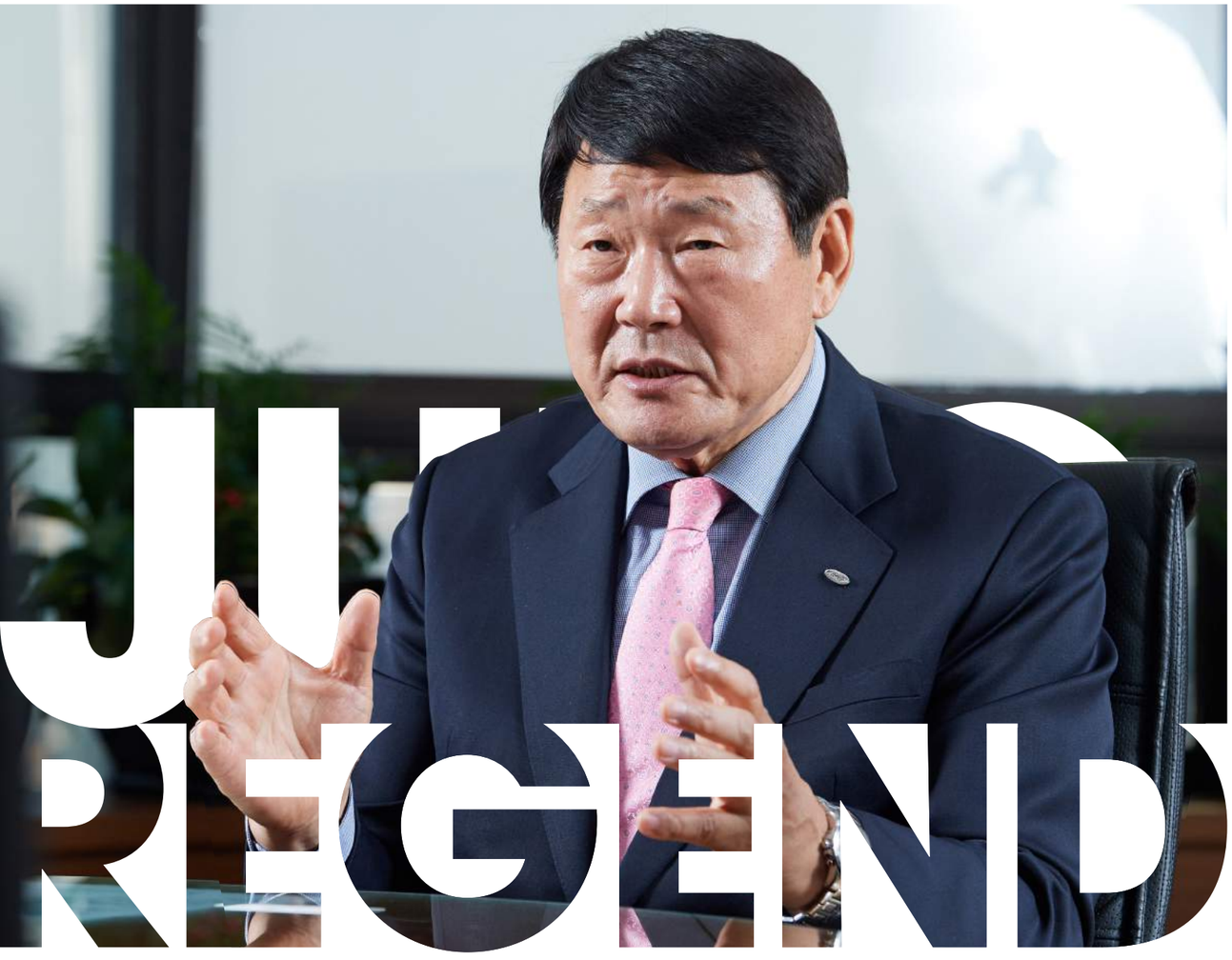
CONTENTS

Korea Judo Association Vol.117

?

02	특별 인터뷰	조재기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
06	표지 이야기	유도 영재육성 현장을 가다
10	국내대회(1)	용인대 총장기 중고대회
12	국내대회(2)	YMCA 전국유도대회
14		고교 유망주 비봉고 배세진
16	국내대회(3)	순천만 정원컵 대회 및 대표2차선발전
18	국내대회(4)	전국소년체전 빛낸 선수 - 김주형, 차아리
20	국제대회	세계곳곳서 한국 유도 맹위
		- 파리 그랜드 슬램 대회 - 후허하오터 그랑프리 대회 - 아시아 유 청소년 대회
26	인터뷰	전남 유도회 임종안 회장
28	명문팀	순천시청 여자유도단
30	유도장 탐방	순천 신대 우림체육관
32	의학 에세이	“부상 치료보다 예방”
34	생활체육	동호인 등록시스템 접속방법
38	유도 뉴스	
41	유도인 동정	전기영 국제유도연맹 슈퍼바이저 강형원 선생 팔순을 맞이하며
46	유도 기록실	
53	2018년도 제1차 정기승단자 명단	

발행일 2017년 12월 29일 | 통권 116호 **등록번호** 송파 바 00008 **등록일자** 1986년 9월 30일 **발행인 겸 편집인** 김진도
책임편집 홍창신 **인쇄처** (주)제이앤제이미디어 **발행처**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424 올림픽회관 504호 대한유도회
TEL 02-422-0581 **FAX** 02-420-4995 **Homepage** judo.sports.or.kr **E-mail** judo@sports.or.kr



“도복 50년... 나의 종교는 柔道”

조재기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

조재기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68)은 자신의 종교를 주저없이 유도(柔道)라고 말한다. 조 이사장은 지난 1월 한국체육의 든든한 후원자로 자리잡은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최고경영자로 임명됐다. 마침 그가 유도복을 입은지 50년이 되는 해에 새로운 길로 나선 것이다. 유도계의 자랑인 조재기 이사장을 만나기 위해 지난 4월 25일 서울 송파구 오륜동 올림픽회관의 공단 이사장실을 방문했다. 조 이사장은 취임 100일을 앞두고 밀려든 언론 인터뷰 일정 중에서도 <유도지 인터뷰>에 반갑게 응해주었다. 조 이사장을 만나보면 첫 눈에도 호걸 풍모를 느낄 수 있다. 익히 알다시피 그는 1976년 몬트리올 올림픽 무제한급 동메달리스트다. 젊은 시절 유도로 단련한 풍체는 고희를 앞둔 나이에도 여전히 살아있다. 키 1m90의 거구에서 뿜는 언변도 시원시원하게 들렸다. 2015년 동아대 교수 정년퇴임한 그는 공단 이사장으로 일하게 된 운명을 소명으로 받아들였다. 조 이사장은 “평생 유도하면서 배운 힘과 정신을 사람과 사회, 국가를 위해 쓰겠다며 살아왔는데, 다시 이런 기회를 받았다”며 “유도인으로 배운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이 직책을 잘 수행하고 유도인으로 돌아가겠다”고 말했다.

글/ 권부원(한국체육언론인회 편집위원) 사진/ 유용우(J&J미디어 기자)

유능제강(柔能制强)과 예시예종(禮始禮終)

조 이사장은 인터뷰를 시작하며 “유도가 오늘날 저를 만들었다고 생각한다”고 먼저 유도계에 감사 인사를 전하며 그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올해로 유도인생 반세기를 맞았다. 지난 50년간 그의 유도를 관통한건 유능제강과 예시예종이란 두 단어였다. 평생 배우고 지키려고 했던 유도 원리라고 할 수 있다.

“부드러움이 능히 강한 걸 제압할 수 있습니다. 유능제강(柔能制强)의 원리는 유도에만 적용되는게 아닙니다. 세상을 살아가는데도 부드러움이 강한 걸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 부드러움이 오늘날 저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조 이사장은 또 유도를 통해 예시예종(禮始禮終)을 몸에 익히고 있다고 했다.

그가 강조한 예시예종(禮始禮終)의 첫 번째 가치는 존중이다.

“유도는 예의에서 시작하고 예의로 끝납니다. 그 예의란 먼저 마음속으로 사람을 존중해야 합니다.”

조 이사장이 일상생활에서 신분과 지위를 막론하고 상대에게 가능한 존댓말을 쓰는 이유이기도 하다.

두 번째는 배려의 가치다. 그는 “늘 상대 입장에서 생각해야 한다”면서 “자신이 강해지는 이유도 따지고 보면 연습 파트너가 있었기에 가능하고, 시합에서 이길 수도 질 수도 있는데 이길 때 패자 입장을 배려하는 마음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예시예종의 세 번째 가치로는 양보를 들었다. 조금 더 가진 사람이 양보하고, 조금 더 강한 사람이 양보하고, 조금 더 빨리 온 사람이 양보하면 우리 사회가 발전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제가 존중 배려 양보를 몸에 익히며 유도인으로서 성장하니까, 오늘날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 자리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늘 유도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부농(富農)의 아들, 유도복 입다

그의 어린 시절은 유도와 거리가 멀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유도장 근처에도 가지 않고 살았다. 조재기는 1950년 경남 하동에서 태어났다. 아버지가 만석꾼이라 불릴 만큼 집안이 부유했다. 하동에서 초등학교를 마치고 곧바로 부산 유학을 떠났다. 그의 부친이 사람은 큰 도시에 가서 공부해야 한다며 장손인 아들을 떠밀었다. 조재기는 당시 또래보다 훨씬 덩치가 크고 힘도 셌다. 중·고교 시절 운동 권유를 숱하게 받았다. 그와 반대로 운동부와 거리를 두고 지냈다. 아버지가 아들이 운동선수가 되는 걸 극구 반대했기 때문이었다.

조 이사장이 떠올린 기억 한자락이다.

“제가 키가 큰데다 잘 뛰는걸 보고 선생님이 농구를 시켰습니다. 매일 농구하며 땀 흘리던 때 마침 아버지가 아들이 보고 싶다고 연락도 없이 부산에 와서 그걸 본거죠. 우리 아들 공부하라 유학까지 보냈는데, 학교에서 운동을 시켰다며 난리가 났죠, 결국 전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전학을 가서도 마찬가지였다. 운동부마다 조재기를 탐냈으나 그는 아버지 뜻을 거역할 수 없었다. 타고난 신체조건을 묵혀두고 평범한 학창시절을 보낸 조재기는 결국 아버지 뜻에 따라 동아대 농대에 입학했다. 아버지는 장손이 많은 농지를 관리하려면 ‘도시에서 월급쟁이 하는 것보다 농대에 가서 배우는게 좋겠다’고 아들에게 권유했다.

조재기는 동아대 입학후 운명처럼 찾아온 유도와 인연을 맺었다. 대학 1학년때 체육대회가 열린 운동장, 거구의 조재기는 누가 봐도 군계일학처럼 눈에 띄었다. 당시 동아대 유도담당 정혁균 교수는 “너 덩치 크고 힘도 세니까 유도하면 잘하겠다”고 조재기에게 손을 내밀었다.(정교수는 입학시험장에서 조재기를 처음 보고 쟤 유도시키면 좋겠다‘란 생각을 품었다고 나중에 털어놓았다고 했다)

다시 조재기 이사장의 회고다.

“제가 덩치는 큰데도 싸움할 줄도 모르고 컸어요, 그때 싸움하면 잡기라도 할수 있어야지란 생각이 들더라고요. 유도가 매력적일 것 같긴 한데 결정못하고 있으니까 유도부에서 4학년 선배들을 보내서 절 잡아갔습니다.”

조재기는 그렇게 자의반 타의반에 의해 유도에 입문했다. 1968년, 대학 1학년때 유도복을 처음 입었으니 굉장히 늦은 편이다. 조재기는 정학균 교수로부터 낙법을 배우며 유도에 재미를 붙여갔다. 출발이 늦었어도 유도선수 조재기는 빛의 속도로 기량을 키워갔다. 이때부터 조재기는 유도계를 자주 놀라게했다. 입문 6개월후 초단을 땄다. 3학년때 처음 출전한 전국종합선수권대회에서 준우승을 차지했다. 마침내 대학 4학년때인 1972년 전국종합선수권대회 무제한급에서 우승했다. 유도시작 4년만에 한국 1인자가 된 것이다. 그리고 유도입문 5년만인 1973년 국가대표로 선발되기에 이르렀다. 그는 유도선수 10년간 종합선수권 3연패 포함 6회 우승한 기록을 보유하고 있다. 지금으로선 상상할 수 없는 기록과 업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원천은 타고난 힘이다. 스스로도 학창시절엔 힘을 앞세운 유도를 했다고 말한다.

“제가 타고난 통뼈여서 힘으로는 한번도 져본적 없습니다. 체격도 크지만 그때 어마어마한 힘을 썼어요. 그런 힘 갖고 했으니까 힘 유도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조재기는 처음 유도복을 입을 때 구체적인 꿈과 목표가 없었다고 했다. 그저 남한테 맞지않기 위해, 그저 매력적인 운동이어서 시작했다는 유도였다. 그 유도의 매력에 차츰 빠지면서 목표가 뚜렷하게 그려졌다.

그것은 국가대표와 올림픽 출전으로 이어진 꿈이었다. 1973년, 국가대표 태극마크는 생각보다 빨리 손에 넣었다. 그날은 잊을 수 없는 순간으로 남아 있다.

"대표선수가 되니까 자신감이 생기고요, 무엇보다 아버지가 아들이 이제 그 길로 가는 가보다 생각하며 이해해주시는게 가장 기뻤습니다. 그때부터 마음놓고 운동할 수 있었고, 혼자서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조 이사장이 알려준 당시 훈련법과 연습량은 상상을 초월한다. 정삼현 교수가 '밧다리 후리기를 완성하려면 하루 1,000번 연습해야 한다'라고 말한 지침에 따라 그는 1일 1,000회 연습을 반복했다. 1,000회는 한번에 하기 힘든 횟수다. 아침, 낮, 저녁으로 나눠서 연습하고 모자라면 꿈 속에서라도 해야 했다. 주무기 밧다리 후리기는 그런 인고의 과정을 거쳐서 완성됐다. 타고난 힘에다 엄청난 연습량이 더해지자 기량이 일취월장하던 시절 얘기다.

1 사진설명
2 몬트리올올림픽 유도 무제한급 시상식에 선 조재기 선수(오른쪽). 삭발한 머리가 눈에 띈다.

몬트리올올림픽이 준 교훈: 절대 포기하지 말라

조재기 이사장하면 빼놓을 수 없는 이야기가 1976년 몬트리올 올림픽이다. 당시 유도 무제한급 동메달은 한국유도 사상 첫 중량급 올림픽 메달이란 의미가 크다.

조 이사장은 몬트리올 올림픽에 관한 질문이 나오자 "매사에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라며 "지금까지 하지 않은 얘기가 있다"고 42년전 비화를 들려주었다.

그의 말을 들으면 몬트리올로 가는 과정부터 동메달 획득까지 극적 순간의 연속이었다. 당시 박정희 정부는 몬트리올 올림픽을 앞두고 소수정예 파견이란 원칙을 정했다. 1972년 뮌헨올림픽 남북간 메달 대결에서 완패한 전력때문이었다.(뮌헨올림픽에서 북한이 금 1, 은 1, 동 3개를 딴 반면 한국은 은메달 1개에 그쳤다)

> 유도는 예의에서 시작하고
> 예의로 끝납니다
> 그 예의란 먼저 사람을
> 존중해야 합니다

조재기는 대표선발전을 거쳐 몬트리올 올림픽 라이트헤비급 대표로 뽑혔다. 하지만 정부는 중량급의 메달 획득 전망이 어둡다는 이유로 80kg급 이상은 선수단 명단에서 뺐다.

"그 얘길 듣고 바로 부산 가서 동아대 총장님을 만나 사정을 설명했어요. 세계선수권대회 출전해보니까 올림픽도 자신감 생겼는데 정부에서 보내주지 않는다고요. 그랬더니 총장님이 제자인 김택수 대한체육회장에게 전화해서 '경비는 내가 댈테니까 우리학교 졸업생 데려가달라'고 말한 끝에 몬트리올 가게된 겁니다. 그냥 포기했으면 안됐을 겁니다."

올림픽 무대를 향한 끈기와 집념은 결국 동메달로 귀결됐다. 그 동메달도 포기를 모르고 도전한 끝에 쟁취한 결과였다. 조재기는 라이트헤비급(93kg 이하급)에 출전했으나 3~4위간 동메달결정전에서 패해 4위에 그쳤다. 그는 동메달을 아깝게 놓친 아쉬움을 떨치고 대회 마지막날 열리는 무제한급 출전을 신청했다. 유도선수단이 모두 반대하고 나섰다. 각 체급 우승자가 모두 출전하는 체급이어서 승산이 낮다는 이유를 댔다. 또한 그날 모두 레슬링 양정모 경기 관전과 함께 바깥 나들이를 한다는 계획도 있었다. 조재기는 그냥 주저앉지 않았다. 선수촌 이발소에서 삭발한 뒤 출전을 고집했다. 사고라도 칠 기세에 출전허락이 떨어졌다. 조재기는 코치와 단둘이 무관심 속에 무제한급에 출전, 패자부활전을 거쳐 동메달을 목에 걸 수 있었다. 조재기의 동메달은 아무도 예상못했고, 아무도 몰랐다.

"선수단 본부에 동메달 땄다고 하니까 '무슨 소리냐, 메달이라니'란 반응이 나왔을 만큼 모두 놀랐지요. 그날 양정모 금메달 경기만 중계했으니까, 우리 집에서도 시합이 다 끝난줄 알았다가 놀랐다고 하고,"

이 대목에서 조 이사장은 "절대 포기하자 말라"는 말을 다시 강조했다.

"실패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면 안됩니다. 제가 그때 올림픽 출전하지 말라 한다고 안했다면. 소수정예만 보낸다고 안갔으면 동메달도 없었어요. 무제한급 출전도 마찬가지고요. 끝까지 내가 할 수 있는 노력을 하니까 길이 열렸던 것입니다."

유도선수로서 그의 올림픽 출전은 몬트리올 단 한번으로 끝났다. 조재기는 1980년 모스크바 올림픽 금메달을 다시 목표로 설정했으나 서방세계의 모스크바행 보이코트로 무산됐다. 그가 못이룬 꿈은 제자 하형주가 1984년 LA올림픽 금메달을 획득함으로써 간접 실현됐다.

퇴임후 유도기념관 건립 계획

조 이사장이 '유도인 반세기' 동안 남긴 족적은 올림픽이란 무대보다 37년간 동아대 교수로서 길러낸 후학과 체육행정가로서 한국스포츠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88올림픽 조직위원회 근무를 시작으로 부산시체육회 사무처장, 대한체육회 이사와 사무총장을 거치며 쌓은 체육행정 경험과 역량이 지금의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까지 이어진 셈이다.

조 이사장은 "제가 체육 행정일을 자주 맡다보니 유도와 조금 거리가 멀어진 측면이 있다"면서 "제가 정말 유도를 해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기회가 된다면 마지막에는 고향에 돌아가서 도장을 만들어서 자라나는 후세에게 참다운 유도를 가르치고 싶다"고 장차 계획을 밝혔다.

실제로 조 이사장은 동아대 교수 정년퇴임 후 하동군과 유도기념관 건립계획을 추진한 바 있다. 이번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 취임이 그 계획을 3년 늦추었을 뿐이다. 3년후 올림픽 동메달리스트가 고향에 터를 잡고 유능제강(柔能制强)과 예시예종(禮始禮終)을 가르치는 날을 그려본다.

약 력

1950 경남 하동 출생
1976 몬트리올올림픽 유도 무제한급 동메달
1978 동아대 전임강사
1979 일본천리대 객원연구원
1997 부산시체육회 사무처장(1997~1999)
1999 동아대 학생처장
2008 대한체육회 사무총장
2008 한국스포츠산업경영학회 회장
2009 대한카바디협회 회장
2014 아시아카바디연맹회장
2015 동아대 교수 정년퇴임
2018 제12대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

조성욱
체육영재 전담지도자

유도 영재육성 현장을 가다

봄이 무르익어 철쭉이 꽃망울을 터뜨리는 4월 17일 오후.
'유도 영재'들이 합숙훈련중인 경기 남양주시에 위치한 금곡중학교 유도장을 찾았다.
오전 웨이트 트레이닝을 마치고 점심 후 휴식을 취하던 어린 선수들이
3시가 가까워오자 하나 둘 모여든다. 한켠에서 도복을 갈아 입고 오후 훈련준비를 마친다.
선수는 모두 6명. 전국 각지에서 뽑혀온 올해 열 다섯살, 중학교 3년생들이다.
체육진흥공단의 스포츠 영재 육성 프로그램에 따라 선발되어 올해 마지막 3년차다.
이 프로그램은 유도 꿈나무 저변확대 및 올림픽 메달 획득을 위한
영재 발굴 육성을 목표로 2년전부터 시행해 오고 있다.
초등학교 6학년때 성적을 토대로 뽑은 선수 중 태릉선수촌에서 체력을 측정하여
정예 멤버를선발, 전담 지도자가 집중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다.

글/ 정호진(J&J미디어 기자) 사진/ 유용우(J&J미디어 기자)

이들은 해마다 봄, 가을 두 차례로 나뉘어 10일씩 별도의 국내 합숙훈련과 방학을 이용한 20여일간의 해외 전지훈련을 하고 있다. 또한 전담 지도자는 수시로 이 선수들이 소속되어 있는 팀을 방문하여 훈련 상황과 몸 상태를 체크하는 등 영재 선수들의 성장에 정성을 기울인다.

2016년 첫 해엔 20여일 동안 독일로 해외 전지훈련을 다녀왔고 작년과 올해 1월엔 24일 동안 유도 종주국 일본 도쿄에서 유명 도장을 전전하며 유도기술을 익혀왔다.

작년부터 이들을 전담 지도해온 조성욱 코치(36)는 대구 덕원중고-선문대-경찰청에서 선수생활을 하다가 은퇴한 후 금곡중에서 지도자 생활을 시작했다.

조 코치는 "아무래도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다 보니 선수들의 실력이 눈에 띄게 늘고 있다"면서 "이미 중학 무대에선 이들이 각 체급 최강의 반열에 올라 있다"고 평가했다.

이들이 대학생이 되는 2022년 이후엔 성인 무대도 접수, 국가대표로 성장할거라는 기대도 숨기지 않는다.

"아직 어린 선수들이라 해외 훈련할 때 음식 적응부터 현지 이동 등 혼자서 관리하는

모치다
일본인 코치

1 유도를 시작하게 된 계기
2 주 기술
3 장래희망
4 좌우명

김 대 현(대구 덕원중 3학년)

1단 | 73kg이하급
2003.01.09 | 170cm 71kg

2017 순천만대회 66kg이하급 2위
2017 소년체전 66kg이하급 3위
2017 회장기 66kg이하급 1위
2017 제주컵 66kg이하급 1위
2018 순천만대회 73kg이하급 1위
2018 유소년대표 선발전
73kg이하급 1위

1 초등 5년때
유도인 아버지 보고
2 업어치기
3 올림픽 금메달 / 체육교사
4 피할수 없으면
즐겨라

김 민 규(통영 중앙중 3학년)

2단 | 90kg이상급
2003.02.22 | 172cm 58kg

2017 순천만대회 51kg이하급 3위
2017 하계중고연맹전 51kg이하급 2위
2017 회장기 55kg이하급 3위
2018 순천만대회 55kg급 1위

1 초등 3년때 체육선생님 권유로
2 업어치기
3 국가대표
4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기

박 진 영(부산 체육중 3학년)

소년초단 | 55kg이하급
2003.05.17 | 176cm 58kg

2017 순천만대회 51kg이하급 1위
2017 봄철연맹전 51kg이하급 1위
2017 청풍기대회 55kg이하급 2위
2017 추계연맹전 55kg이하급 1위
2017 회장기 55kg이하급 3위

1 초등 5년때, 아버지와 코치의 권유로
2 안다리
3 국가대표 / 체육교사
4 초심을 잃지 말자

김 어 진(후평중 3학년)

2단 | 66kg이하급
2003.03.25 | 170cm 63kg

2017 청풍기 66kg이하급 3위
2017 추계연맹전 66kg이하급 3위

1 초등 3년때
유도선생님 권유로
2 안뒤축 걸기
3 경찰관
4 열심히 하자

조 성 호(영천 영동중 3학년)

2단 | 60kg이하급
2003.01.13 | 167cm 60kg

2016 회장기 60kg이하급 3위
2017 청풍기 60kg이하급 1위
2017 제주컵 국제유도 60kg이하급 1위

1 초등 3년때 친구와 함께
2 업어치기
3 국가대표
4 성실히 하면 할 수 있다

김 주 형(인천 부평서중 3학년)

2단 | 90kg이상급
2003.07.05 | 182cm 125kg

2017 소년체전 90kg이상급 1위
2017 회장기 90kg이상급 1위
2017 제주컵 90kg이상급 1위
2018 춘계연맹전 90kg이상급 1위
2018 순천만대회 90kg이상급 1위

1 초등 4년때 아버지 권유로
2 업어치기
3 그랜드 슬램 / 교수
4 훈련량은 경기결과와 비례한다

게 많아 힘들다"고 실토한 조 코치는 "그렇지만 해외 훈련 경험을 통해 선수들의 실력이 향상되는 모습을 보면 보람을 느낀다"고 말한다.

이번 훈련에는 조성욱 코치외에 일본에서 작년부터 인연을 맺어 온 일본 경찰청 소속의 모치다 수석 코치(53)도 합류하여 선수들을 지도하고 있다.

모치다 코치는 "일본도 엘리트 선수들이 줄어 들고 있어 종주국으로서 고민이 많다"면서 "재능있는 선수들을 일찌감치 선발하여 집중 조련하는 프로그램은 국제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는데 효과가 클 것 같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모치다 코치는 "선수들에게 단순히 기술의 전수보다 유도의 정신, 존경심과 운동의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한국 선수들은 다리 연결 기술이 좋다. 하지만 뒷깃을 잡는 등 일본에선 금지되어 있는 기술을 쓰려고 한다. 선수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조심하는 것이 좋을 듯 하다"고 지적했다.

합숙 훈련 스케줄은 매번 거의 비슷하다.

새벽 5시 40분 기상. 6시부터 한시간 동안 민첩성과 유연성을 기르기 위한 체력단련, 오전 10시부터는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거나 도복을 입고 굳히기 기술을 익힌다.

오후엔 3시부터 자유 대련을 하며 코치들의 집중지도를 받는다. 밤에는 한시간씩 간단한 일본어 회화교육도 빠뜨리지 않는다.

선수들은 이구동성으로 "일본인 코치로부터 새로운 기술을 배울 수 있어 좋고 실력이 엇비슷한 선수들이 함께 훈련하다보니 훨씬 재미있고 효과도 큰거 같다"며 만족감을 나타냈다.

유도 유망주들의 희망과 꿈을 보여주다

2018 용인대 총장기 중고대회

유도 유망주들이 참가한 꿈의 무대, 2018 용인대 총장기 전국 중고 유도대회가 양구에서 5월 15일부터 4일간의 열전을 끝마쳤다. 이번 대회는 유도의 오랜 전통을 이어오고 있는 용인대학교와 대한유도회가 공동 주최한 전국대회로, 유도를 각 지역으로 널리 보급하고 장려하기 위해 계획됐다. 김진도 대회유도회장, 용인대 박선경 총장, 용인대 총동문회 김정행 회장 등 유도계 유명 인사들을 비롯해 전창범 양구군수, 강원 유도회 박승용 회장, 양구군의회 최경지 의장 등 이름 있는 관계자들이 많은 격려와 관심을 보냈다. 이번 대회는 전국 49개교의 선수 총 984명이 참가해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펼쳤다.

글/ 이원희(J&J미디어 기자) 사진/ 유용우(J&J미디어 기자)

오랜 역사 지닌 용인대 유도시범단

대회 초반 우레와 같은 박수를 받은 이들은 용인대 유도시범단이었다. 오랜 역사를 지닌 유도시범단은 용인대의 자랑 중 하나다. 이번 대회에서도 절도 있는 준비 자세와 우렁찬 기합으로 사람들의 주목을 이끈 뒤 화려한 시범을 선보였다. 공중을 날고 상대를 강하게 메치는 기술은 한 편의 무술 공연 같았다. 특히 10여명을 앞에 두고도 가뿐히 뛰어넘는 낙법 시범은 많은 이들에게 두고두고 회자됐다. 강렬한 퍼포먼스로 대회 분위기를 끌어올린 유도시범단은 노력의 결과물이라고 표현했다. 유도시범단 박창길 팀장(21)은 "멤버들 모두 유도만 6~7년 이상을 해온 실력자들이다. 유도시범도 3년 이상을 배웠다. 용인대를 대표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훈련을 많이 했고, 덕분에 멋진 시범을 선보여 기분이 좋다"고 말했다. 작은 체구에도 강렬한 시범을 보여줬던 유경주(21)양도 "유도시범단에 처음 들어갔을 때만 해도 공중을 나는 것이 무서웠다. 하지만 훈련을 통해 자신감과 책임감을 쌓으면서 좋은 시범을 보여준 것 같다"고 만족했다.

'강원도 산골소녀' 유예슬, 노소현 "유도가 좋아요"

북원여중 유예슬은 작은 체구에도 노련한 기술을 앞세워 45kg이하급에서 금메달을 차지했다. 결승에서 광명북중 배진희를 상대로 초반 지도 두 개를 빼앗겼지만, 업어치기와 안뒤축 후리기 등 주특기로 정상에 올랐다. 철원여중 노소현도 48kg이하급 결승에서 해동중 박미진과 맞붙어 안뒤축 걸기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둘은 강원도 산골소녀다. 유예슬은 언니를 따라 유도를 시작했다. 작은 체구에도 상대를 넘어트릴 수 있는 기술들의 재미를 깨닫고 유도의 매력에 푹 빠졌다고 했다. 유예슬의 성장세는 가파르다. 팀 내 기대가 높은 편이고 본인도 더 좋은 선수로 성장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유예슬은 "앞으로 살을 찌워서 내가 원하는 체격을 만들고 싶다. 항상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전했다. 노소현의 유도 입문 과정도 비슷했다. 상대를 넘어뜨리는 짜릿함. 그 유도만의 매력을 느끼고 유도선수의 꿈을 키워나가고 있다. 노소현은 "상대를 눕히고 경기에 이겼을 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 있다. 계속해서 성장해 올림픽에 나가 금메달을 따는 것이 제 꿈이다"고 힘줘 말했다.

유도명문교 전북중 남중부 단체전 우승

전북중은 유도 명문교다. 창단 38년째를 맞고 있는 전북중 유도팀은 이번 대회 남중부 단체전에서도 보성중을 상대로 3-2 역전승을 거뒀다. 2-2 동점 상황에서 진정민이 고상범에게 한판승 위력을 과시했다. 승리의 주역이었던 진정민은 "팀이 1-2로 지고 있을 때만해도 힘들 거라는 생각도 들었다. 하지만 선수들 모두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노력한 덕분에 기적이 일어난 것 같다. 제가 마지막으로 출전해 팀의 승리를 확정지은 한판승을 해 기분이 더 특별하다"고 웃었다. 전북중은 이번 대회 금빛잔치를 벌였다. 개인전 81kg이하급 김윤우가 결승에서 대전체육중 이충수를 한판으로 누르고 금메달을 차지. 전북중의 에이스 박성근도 90kg이상급 결승에서 권선중 송진희를 상대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결승에서 시원한 한판승을 보여준 박성근은 "평소 밥과 고기를 많이 먹어 힘이 좋다"고 웃은 뒤 "코치님이 지도해주신 대로 했더니 결과가 좋았다. 팀원 전체적으로 서로 챙기는 분위기다. 어딘가 모르게 끈끈한 면이 있다. 팀 분위기가 좋을 수밖에 없어 즐겁게 운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옆에 있던 김윤우도 "전북중의 최대 장점은 팀워크다. 힘든 일이든, 좋은 일이든 모두가 함께하려고 한다. 훈련 때도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면서 힘이 돼주고 있다"고 거들었다.

재일동포 오가와성시 '한판승 사나이'

비봉고 오가와성시는 남고부 81kg이하급 결승에서 주산산업고 이남훈을 만나 화끈한 허리후리기 한판으로 우승을 차지했다. 오가와성시는 재일동포다. 아버지가 일본인, 어머니가 비봉고 유도선수 출신의 한국인인 오가와성시는 1회전부터 3회전까지 모두 한판승을 거뒀다. 16강전에서 보성고 김영승에게 반칙승을 거둔 뒤 8강 비봉고 이빈, 진량고 이규인을 상대로 한판승을 따냈다. 결승에서도 이남훈에게 먼저 지도를 빼앗긴 상황에서도 끝까지 집중력을 발휘해 한판승을 수확했다. 중학교 시절부터 유도 유망주로 주목을 받았던 오가와성시는 이번 대회 비봉고에 유일한 금메달을 선사했다. 대회 내내 대부분 한판승을 따내 '한판승의 사나이'라는 칭호가 붙었다.

남고부 최강 보성고 단체전 5연패

남고부 단체전은 무풍지대다. 판도를 뒤흔들 경쟁팀을 쉽게 찾을 수 없다. 유도명문교 보성고가 무려 5년 동안 대회 5연패를 달성했다. 10년 동안 7차례나 대회를 제패했으니 자타공인 남고부 최강팀으로 불릴 만하다. 참고로 보성고는 2004 아테네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이원희(현 은퇴)를 배출시킨 것으로 유명하다. 이번 대회 보성고는 100kg이상급 금메달을 획득한 김민종을 중심으로 도개고, 우석고, 동지고를 차례대로 꺾었다. 결승에서는 전국구 경민고를 상대로 4승1무2패를 기록해 금메달을 따냈다. 2-2 동점 상황에서 에이스 김민종이 이종호를 만나 한판승을 획득해 리드, 이어 정 두도 김태모에게 통쾌한 한판승을 따내 승리를 확정지었다. 경민고는 2011년 이후 7년만에 대회 정상을 노렸지만 결승에서 아쉬운 패배를 기록했다. 대신 김태모가 개인전 66kg이하급에서 금메달을 따내 자존심을 세웠다.

‘김천’에서 유도 새싹들이 꿈을 틔우다

제89회 YMCA 전국유도대회

1929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여든 아홉 번째를 맞은 ‘제89회 YMCA 전국유도대회’가 지난 4월 30일부터 사흘동안 경북 김천 실내체육관에서 성공적으로 치러졌다. 국내 유도대회 가운데 가장 오래된 YMCA 전국유도대회는 고등부 유도 새싹들의 산실로서 한국 유도와 함께 걸어왔다.

글/ 이광준(J&J미디어 기자) 사진/ 유용우(J&J미디어 기자)

바뀐 규정, 적극적인 참가 유도

총 3일 간 진행된 대회는 1, 2일차에 개인전이, 마지막 3일 차에는 단체전이 열렸다. 개인전에는 남고부 486명, 여고부 184명이 참가했으며 단체전에는 남고부 27개 팀, 여고부 11개 팀이 참여했다. 지난 대회에 남고부 개인전 261명, 여고부 116명, 단체전 19개 팀이 참여한 것과 비교했을 때 그 규모 면에서 훨씬 커져 의미를 가졌다.

이렇게 참가 인원이 크게 늘어난 것은 지난해와 다른 제도 때문이다. 교육부는 지난해 초·중·고등부 학생들 대회 출전을 연 3회로 제한하는 규정을 실시했다. 최근 엘리트 체육 학생들에게도 학교 수업을 듣도록 하는 분위기가 강조된 것에 따른 변화였다. 그러나 이는 결과적으로 실패로 돌아갔다. 유도는 대회 기간이 짧고 자주 있는 것이 특징. 대한유도회 관계자는 “3회 출전 제한은 유도에 맞지 않은 제도”라고 평가했다.

유도를 비롯해 많은 종목에서 문제를 낳았던 이 제도는 올해부터 바뀌어 학교장이 ‘63일’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변경됐다. 즉, 대회 횟수에 관계없이 한 학생에게 필요한 수업일수 가운데 63일을 훈련, 대회에 조절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번 대회는 평소 대회와는 달리 오전 10시부터 경기를 시작했다. 대한유도회 측은 “9시에 대회가 시작되면 선수들은 새벽 5~6시 사이에 일어나 준비해야 한다. 성장기인 선수들임을 고려해 조금 더 수면시간을 보장하자는 의미로 10시에 시작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많은 손님과 함께 한 YMCA

4월 30일, 개막식이 열린 김천 실내체육관으로 향했다. 오전 11시, 정해진 시간이 되자 개회식이 시작됐다.

이날 개회식에는 많은 내빈들이 찾아 자리를 빛냈다. 대한체육회 김정행 명예회장을 비롯해 김천시 박보생 시장, 김천시 배낙호 시의장, 대한체육회 조영철 상임부회장 등이 방문해 선수들을 독려했다.

국민의례와 내빈소개가 끝나고 경북유도회 엄득웅 회장 개회선언이 있었다. 짧지만 강렬한 개회 선언에 선수들은 뜨거운 박수로 화답했다.

환영사를 맡은 박보생 시장은 젊은 시절 본인 역시 유도를 했음을 밝히며 “이번 대회를 통해 김천이 스포츠 중심 도시로 또 한 번 자리매김하고, 나아가 선수들이 좋은 결실을 맺길 바란다”라고 응원했다. 이어 여봉구 서울 YMCA본부장이 대회사를 위해 단상에 섰다. 여 본부장은 “1903년에 창단된 YMCA는 그 후로 꾸준히 선수 육성, 국민건강 증진에 힘썼다. 여기 선수들이 그 뜻을 이어받아 좋은 선수로 성장하길 빈다”라고 했다. 뒤이어 대한체육회 조영철 상임부회장 격려사와 배낙호 시의장 축사로 순서가 이어졌다. 행사는 단증 수여식으로 이어졌다. 지난 2월 28일, 대한유도회 정기승단 심사에서 9단으로 승단한 박팔용 전 김천시장을 위한 자리였다. 박 전 시장은 초등학교 5학년 시절 유도로 입문한 이후 꾸준히 유도와 함께 해 온 끝에 60년 만에 공인 9단을 받았다. 공인 9단은 최고의 단이기 때문에 기술 외적 요소들이 적용된다. 박 전 시장은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김재범, 최민호가 무명 선수일 당시 후원금을 지원했으며 대한유도회에도 장학금과 후원발전기금을 적극적으로 출연하며 유도 발전에 큰 역할을 해왔다. 박 전 시장은 이러한 외적 공로를 인정받고 9단 승단에 성공했다. 이번 대회가 김천시에서 열리는 만큼 박 전 시장을 비롯해 보는 이에게 더욱 의미를 가져다주는 단증 수여식이었다. 다음으로 김천에서 대회를 개최할 수 있게끔 공헌한 김천시유도회 김한수 회장에게 공로패가 전달됐다.

대회 MVP 배세진 & 유현지

개인전 결과 대회 MVP는 남고부 비봉고 배세진(100kg이상급), 여고부 울산생과고 유현지(70kg이하급)에게 돌아갔다.

배세진은 8강전에서 동급 최대 유망주로 꼽히는 김민종(보성고)을 잡는 괴력을 발휘했다. 경기 시작 후 단 30초 만에 아래를 파고들어 깔끔하게 넘기는 어깨로 메치기에 성공, 지켜보는 관객 모두가 함성을 쏟아냈다. 그 후 배세진은 승승장구하며 당당히 100kg이상급 우승을 차지, 남고부 MVP에 선정되는 영광까지 함께 누렸다.

개인전 MVP 비봉고 배세진과 울산생과고 유현지

여고부 유현지는 같은 학교 라이벌 김민경을 4강서 잡아내고 결승에 올라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유현지는 같은 학교 김민경과 펼친 4강전에서 지도 싸움 끝에 연장에 돌입, 끈질긴 공격으로 상대 지도를 유발하며 결승에 진출했다. 결승에서는 최엄지(주문진고)를 상대로 깔끔한 허리기술로 절반을 따내 승리했다. 단체전에서는 남고부 경민고가 1위, 보성고가 2위에 올랐다. 3위는 충남체고와 금호공고가 차지했다. 여고부에서는 경기체고가 금메달을, 광영여고가 은메달을 획득했다. 철원여고와 울산생과고가 3위로 그 뒤를 이었다.

자유로운 분위기, 열띤 응원은 덤

김천 실내체육관은 다양한 종목이 열리는 곳이다. 여자배구 프로 팀인 김천 하이패스 배구단이 사용하고 있는 만큼 널찍한 실내 공간을 자랑한다. 약 5,500명을 기본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다.

넓은 공간은 참가 선수들이 자유롭게 경기를 준비하고, 동료들 경기를 관람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여유 공간이 많아 선수들이 통행하기에도 부족함이 없었다. 당연 안전 문제도 훨씬 좋았다는 평이다. 프로 스포츠가 열리는 곳인 만큼 관람에는 최적화된 시설을 갖췄다. 경기장을 중심으로 타원형으로 이뤄진 관중석에 참가 학생들은 각자 출전 선수들을 자유롭게 응원했다. 평소 격한 응원이 쏟아지던 유도 경기장 분위기와는 사뭇 다른 풋풋함이 느껴졌다.

경기를 지켜보던 한 관중은 “넓은 곳에서 경기를 치러 쾌적하다. 또 공간이 좋아 안전사고 문제도 덜 수 있어 안심이 된다”라고 이야기했다.

다만 뜨거운 내부 온도는 옥에 티였다. 바깥 기온이 20도를 훌쩍 넘었고 습기로 인한 눅눅함에 더위가 쉽게 가시질 않았다. 내부 냉방시설이 좀 더 작동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았다.

이제는 당당한 1등

남고부 MVP 비봉고 배세진

이번 YMCA 전국유도대회에서 가장 큰 함성이 나온 순간은 남고부 100kg급 이상 8강전, 비봉고 배세진(18·3학년)과 보성고 김민종(18·3학년) 간 경기였다. 나가는 경기마다 우승하며 최중량급 최고 기대주로 꼽히던 김민종. 그리고 중학교 1학년 이후로 단 한 번도 김민종을 이기지 못했던 2인자 배세진.
그러나 이번엔 달랐다. 배세진은 경기 시작 후 눈 깜짝할 새 김민종 아래를 파고들어 어깨로 메치기 한판승을 따냈다. 모두가 놀란 순간이었다. 이 승리로 배세진은 승승장구하며 결국 우승을 차지, 덩달아 대회 최우수선수에 선정되는 영광도 함께 누렸다. 경기 후 만난 배세진은 동료이자 경쟁 상대인 김민종을 향해 고마움을 표하며 우승의 기쁨을 누렸다.

글/ 이광준(J&J미디어 기자) 사진/ 유용우(J&J미디어 기자)

Q. 우승 축하한다. 소감은?
정말 얼떨떨하다. 늘 2위만 하다가 1위를 하니 정신이 없다. 대회 MVP까지 받을 줄은 더더욱 생각도 못했다. 놀라움의 연속이다.

Q. 늘 2위를 했던 건 김민종 때문인가.
그렇다. 매번 넘지 못했던 상대다. 몇 차례 우승을 한 적도 있지만 김민종이 나오지 않은 대회에서였다. 이 경기 전까지 김민종과 상대전적이 28전 28패였다. 이번에는 한 번 이기고 싶었다. 그래서 (김)민종이만 악착같이 분석했다. 정말 1등이 하고 싶었다. 경기 전날에도 비디오를 보다 잠에 들었다. 그 때 생각했던 대로 기술을 들어갔는데 그게 먹혀들었다.

Q. 8강전 당시를 떠올려 달라.
정말 순식간이었다. 빈틈이 보였거나 하진 않았다. 정말 긴장 많이 했다. 그래서 질 줄 알았다. 넘기기 직전 몸이 잘 안 움직였는데 '지기 전에 한 번 해보자'라고 마음먹고 확 기술을 들어갔다. 그게 통해 이겼다. 생각지도 못한 승리라 아직도 놀랍다(웃음).

Q. 왼쪽 발목에 붕대를 감고 있는데.
대회 치르기 전 운동하다가 다쳤다. 많이 다친 건 아니어서 테이핑을 철저히 하고 경기에 임했다. 경기 중에는 긴장돼서 아픈 줄도 몰랐다.

Q. 이후 승승장구하며 우승을 차지했다.
부담이 컸다. 주변에서 '김민종 잡았으니 이제 우승해야지'라고 말했다. 사실 민종이를 잡아서 더 이상 욕심은 없었다. 4강서는 져도 좋다는 생각도 들었다. 그렇지만 잘 풀려서 우승한 것 같다. 다행이다.

Q. 경기 후 김민종에게 뭐라고 했는지.
고맙다고 했다. 그러니 민종이도 '고맙다'라고 하더라. 국가대표 상비군에도 늘 같이 가서로 친한 사이다. 내 경쟁 상대가, 라이벌이, 넘어야 하는 목표가 돼 준 선수다. 경기는 이길 수도, 질 수도 있다. 결과보다는 그 과정이 더 중요하다. 김민종 덕분에 할 수 있던 우승이라고 생각한다.

Q. 서로 좋은 자극제가 되는 것 같다.
늘 그렇게 생각한다. 같이 발전하고 있음을 느낀다. 자극도 많이 받는다. 상대전적상 내가 많이 밀리지만 서로 '경기는 질 수도, 이길 수도 있다'라고 자주 이야기한다. 그런 자세로 함께 훈련하니 더 실력이 느는 것 같다.

Q. 이제 고등학교 3학년, 고등부 마지막이다.
이제 대학 진학을 앞두고 있다. 떳떳하게 인정받아 가고 싶다. 여기저기서 '너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잡아줬으면 좋겠다.

Q. 준비는 잘 하고 있는지.
열심히 훈련 중이다. 훈련할 때 아무 생각 없이 운동에 임하는 편이다. 당연히 지치고 힘들지만 그 외에 다른 생각은 안 하려고 한다. 그렇게 훈련하고 끝마친 뒤에는 뿌듯하다. '아 내가 오늘도 이렇게 열심히 했구나'라고 스스로를 위로하곤 한다.

Q.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남은 기간이 정말 중요할 텐데.
그렇다. 지금보다 더 잘해야 한다. 이제 시작이다. 이번 우승에 안주하지 않고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

Q. 2020 도쿄올림픽이 다가오고 있다.
올림픽은 모든 유도인들의 꿈 아니겠는가. 나 역시 그렇다. 꿈을 이루려면 더 열심히, 더 많이 노력하는 것 밖에는 없다. 그러면 성공하는 법이다. 그렇게 믿고 있다.

Q. 어떤 선수로 기억되고 싶은지.
모두가 나를 인정해주길 바란다. 훗날 '유도' 하면 배세진이 떠오를 수 있도록 되는 게 목표다. 이 유도 계에서 큰 인물이 되고프다.

Q. 끝으로 남은 고등부 일정, 그리고 앞으로 유도인으로서 각오 부탁한다.
앞으로 남은 대회 모두 정상에 오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정상에 서는 '배세진'이 되도록 하겠다.

초등부서 일반부까지 2,000여명 매트열전

순천만 국가원정컵 대회 및 대표 2차 선발전

**제3회 순천만 국가정원컵 전국 유도대회 겸 국가대표 2차 선발전이 3월 12일부터 5일동안 순천시 팔마실내체육관에서 열렸다.
순천시 체육회와 대한 유도회가 주최하고, 순천시 유도회가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전국의 남녀, 초·중·고, 대학, 일반부 선수 및 임원 등 관계자 2,000여명이 참가, 매트위에서 열전을 펼쳤다.
이번 대회 눈길을 끈 화제들을 모아 보았다.**

글/ 유도지 편집부

왼쪽 하정우(의정부 경민고)와 하승우(안산 관산중) 형제.

시력장애 윤용호(청주대).

신생팀 순천시청에서 발탁된 국가대표 박다솔.

형제가 남자 중·고등부서

나란히 금메달

하정우(의정부 경민고)와 하승우(안산 관산중) 형제가 나란히 남자 중·고등부 체급 정상에 동행했다. 형 하정우는 남고부 60kg이하급 결승서 이태화(대전체고)를 맞아 안뒤축 절반과 업어치기 절반을 묶어 한판승을 거두고 금메달을 획득했다. 동생 하승우는 남중부 48kg이하급 결승에서 이태호(대전대성중)를 상대로 호쾌한 업어치기 한판승을 거두고 우승, 지난해 12월 제주컵 대회에 이어 2개 대회 연속 패권을 안았다.

시력장애 윤용호,

정상인과 겨뤄 은메달

장애인 윤용호(청주대)가 정상인들과 당당히 겨뤄 은메달을 따냈다. 지난해 시력 저하로 스포츠 장애등급(B3)을 받은 윤용호는 대표 2차선발전 남자부 66kg이하급 결승에서 2016 리우올림픽 은메달 안바울(남양주시청)을 만나 지도 3개를 받아 반칙패를 당해 2위에 머물렀다. 윤용호는 홍문호(경기대)와 박현익(포항시청), 김화수(용인대), 권재덕(상무)을 한판승으로 누르고 준결승에서 함영진(수원시청)과 연장전 끝에 안오금띄기 절반을 합쳐 한판승을 거뒀다. 윤용호는 청주 청석고를 졸업하고 청주대 유도부에서 각종 전국대회에 출전해 메달을 목에 거는 등 송대남(국가대표 유도 코치)을 잇는 기대주로 부각됐으나 지난해 장애 판정을 받아 IBSA(국제시각장애인스포츠협회) 세계 유도 월드컵에 출전해 금메달을 차지했다. 한편 윤용호는 오는 10월 인도네이사 자카르타에서 열리는 2018년 아시아파라게임(장애인 아시안게임)에 출전한다.

박종학 청주대 유도부 교수는 "윤용호는 초등학교 시절부터 남다른 실력으로 대한민국 유도 간판으로 성장할 가능성을 갖춘 선수였다"며 "앞으로도 윤용호가 송대남을 잇는 대한민국 간판 유도 선수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지도를 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생팀 순천시청

국가대표 박다솔 배출

지난해 12월 창단한 '신생팀' 순천시청 유도팀이 국가대표를 배출했다.

박다솔이 대표 2차선발전 여자부 52kg이하급 우승을 차지, 올해 8월 개최되는 제18회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 출전하게 된것. 박다솔은 결승전에서 하주희(고창군청) 선수의 반칙승으로 우승을 거머쥐었다. 임종안 전남유도회 회장은 "신생팀인 순천시청 여자유도팀이 전남도민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돼 뜻깊에 생각한다"며 "이번 성과는 그 동안 보내주신 뜨거운 관심과 성원의 결과라고 생각하고, 지역에 자랑이 되는 명품 유도선수단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북중, 남중부 단체전

2년연속 우승

전북중학교 유도팀이 남중부 단체전에서 작년에 이어 우승을 차지했다. 전북중은 16강에서 서울성남중을 3-0으로, 8강에서 광주체육중을 3-0으로, 준결승에서 순천신흥중을 3-0으로 제압한 뒤 결승에서 대구덕원중을 3-2로 누르고 우승컵을 안았다.

한편, 개인전에서는 김형석(3학년)이 90kg이하급 1위, 김윤우(3학년)이 81kg이하급 2위, 최영민(2학년)이 45kg이하급 3위, 박성근(3학년)이 90kg이상급 3위를 차지했다.

김정대감독은 "지난 겨울 혹독한 동계훈련을 이겨낸 선수들과 지원을 아끼지 않은 학교에 감사하다고 우승에 영광을 돌린다"며 "5월에 있을 소년체전에서도 좋은 성적이 기대된다"며 우승의 소감을 말했다.

제주 선수들 선전

금 2, 은 2, 동 3개 수확

스포츠 불모지 제주 선수들의 선전이 빛을 발했다. 제주 선수들은 금 2개, 은 2개, 동 3개 등 모두 7개의 메달을 따냈다.

허정재(보목초 6)는 대회 남자 초등부 60kg이하급 결승에서 권한빈(흥덕초)을 만나 지도 반칙승을 거두며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후배 신유미(보목초 5)도 여자 초등부 36kg이하급 결승전에서 김민지(삼산초)를 상대로 밭다리 걸기 한판승을 따내 1위를 차지했다. 홍규리(제주중앙초 5)는 여자 초등부 40kg이하급 결승에서 정수아(송중초)에 발뒤축걸기 한판패를 허용하며 아쉬운 은메달을 수확했다. 김민정(위미중 2)도 여자 중등부 48kg이하급 결승전에서 김근영(영선중)을 만나 절반패를 당해 2위에 올랐다. 이

총 7개의 메달을 따낸 제주 선수들.

김낙순 한국마사회장(왼쪽에서 세번째).

민수(제주북초 6)와 김윤건(강정초 6), 박한민(납읍초 6)은 남자 초등부 66kg이하급과 66kg이상급, 48kg이하급 경기에 각각 출전해 나란히 동메달을 따냈다.

의정부 경민고, 경민IT고

나란히 단체전 우승

의정부 경민고, 경민IT고 남매가 남녀 고등부에서 나란히 단체 패권을 차지했다.

경민고는 남고부 단체전 결승에서 홍석하, 이준환, 김신종, 허성준의 활약으로 전주 우석고에 4-3 승리를 거두고 3년 만에 패권을 되찾았다. 이날 1회전서 충남체고에 4-1, 8강서 익산 원광고에 4-2, 준결승전서 서울 보성고를 4-0으로 완파하고 결승에 오른 경민고는 첫 경기서 홍석하가 김영승을 업어치기 되치기 한판으로 제쳐 기선을 제압했으나, 이어 권혁규와 이종호가 잇따라 패해 1-2 역전을 내줬다.

하지만 경민고는 4번째 경기에서 개인전 73kg이하급 우승자인 '새내기' 이준환이 이승연을 안뒤축 한판으로 꺾어 2-2 동률을 만든 후, 김신종이 정태수를 업어치기 절반으로 뉘여 3-2로 앞서갔다. 승리를 눈앞에 둔 경민고는 5번째 경기서 안재홍이 지도패를 당해 3-3 재동률을 허용했으나, 마지막 경기서 허성준이 정선욱을 안뒤축후리기 한판으로 물리쳐 정상을 탈환했다. 경민고 우승의 주역인 이준환은 대회 2관왕에 올랐다.

한편, 여고부 결승전서 경민IT고는 서울 광영여고를 3-1로 꺾고 2연패를 달성했다. 경민IT고는 이날 1회전서 전북여고에 기권승을 거둔 뒤, 8강과 준결승전서 각각 서울체고, 부산 삼정고 3-1, 3-0으로 누르고 결승에 진출해 첫 경기서 허슬미가 최정원에 절반패를 당해 불안하게 출발했다. 그러나 경민IT고는 두 번째 경기서 최홍영이 안주연에 허리후리기 한판승을 거둬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다. 이어 이아현과 정이주가 각각 강소담과 제지우를 업어치기 한판, 밭다리 한판으로 뉘여 역전승을 거두고 2년 연속 패권을 안았다.

김낙순 마사회장

아시안게임 대표 3명 격려

김낙순 한국마사회장은 3월 15일 2018년 자카르타 아시안게임 국가대표로 선발된 한국마사회 유도단 김성민, 김민정 선수 등을 격려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전날까지 치러진 대표 2차선발전에서 한국마사회 유도단 김성민(100kg이상급), 김민정(78kg이상급), 이승수(81kg이하급) 선수가 우승하며 국가대표 출전권을 획득했다. 김낙순 마사회장은 취임 후 한국마사회 스포츠단 선수들의 훈련장소를 방문해 격려하는 등 국격 고양을 위해 스포츠단 육성에 힘쓰고 있다.

김낙순 한국마사회장은 "한국마사회 렛츠런 유도단 선수분들이 진심으로 자랑스럽다"며 "국민들에게 자카르타 아시안게임에서 한국유도의 저력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즐기면서 운동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랜드슬램에서 메달 따는 선수 되겠다

남중부 90kg이상급 2연속 금메달 김주형

한국 유도 유망주 부평서중 김주형(15)이 전국소년체육대회 2연패에 성공했다. 김주형은 26~27일 양일간 청주 유도회관에서 열린 제47회 전국소년체육대회 90kg이상급에서 금메달을 획득했다. 그는 결승에서 야음중 백두산과의 치열한 승부 끝에 한판승을 거뒀다. 상대에게 먼저 절반을 뺏기고도 집중력을 유지한 결과다. 김주형은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하면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 생각했다. 내 자신을 믿고 이기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소감을 밝혔다.

김주형은 지난해 열린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도 금메달을 따냈다. 대회 2연패다. 초등학교 4학년 때 아버지의 권유로 유도를 시작했던 김주형은 6학년이던 지난 2015년 전국소년체육대회에 초등부 65kg이상급에 출전해 첫 금메달을 수확했다. 이때 김주형은 유도의 매력에 푹 빠졌다. 김주형은 "상대를 매칠 때 기분이 짜릿하다. 그래서 저의 주특기도 업어치기다. 더 좋은 기술을 연마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함께한 코치님들을 비롯해 부모님도 항상 옆에서 응원해주신다. 어려운 순간에도 힘이 되고 있다"고 고마워했다. 이번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김주형은 8강전을 빼고 모두 한판승을 거뒀다. 거구를 상대로 쉽게 메치는 김주형의 힘은 '밥심'에서 나온다. 김주형은 "음식이라면 가리지 않고 잘 먹는다. 먹고 싶은 게 있다면 최대한 다 먹으려고 한다. 한 끼에 밥 2~3 공기는 거뜬하다"며 쑥스럽게 웃었다. 자기 발전도 게을리 하지 않는다. 김주형은 "웨이트 훈련에 특히 집중하고, 컨디션을 위해 될 수 있으면 빨리 자려고 한다. 유명한 유도 선수들의 영상을 보며 공부하기도 한다. 특히 조구함 선수가 저의 롤모델이라고 했다. 조구함은 2017 도쿄 유도 그랜드슬램 100kg급에서 금메달을 딴 유도스타다. 김주형은 학업성적도 좋다. 그는 "운동을 한다고 해서 공부를 소홀히 할 수 없다. 모두 열심히 하고 싶다"고 설명했다.

김주형은 기량과 성장 가능성을 인정받아 '대한민국 유도영재'에 선발되기도 했다.

그는 이 성장세를 유지해 한국 유도를 대표하는 선수가 되고 싶다고 했다. 김주형은 "제가 유도부의 주장을 맡고 있다. 후배들을 위해서라도 더 열심히 해야 한다. 고등학교에 올라가더라도 계속 1등만 하고 싶다. 끊임없이 실력을 발전해 훌륭한 선수가 되고 싶다. 앞으로 그랜드슬램에서도 메달을 획득하겠다"며 힘찬 각오를 밝혔다.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되겠다

여중부 57kg이하급 금메달 차아리

제47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여자 중학 57kg이하급 결승에서 영선중 차아리가 남해여중 박나연을 꺾고 금메달을 획득했다. 차아리는 금메달이 확정되자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그는 "저번 대결에서 박나연에게 진 경험이 있다. 그 뒤로 훈련과 연구를 많이 했고, 이번 대회에서 꼭 이기려고 했다. 결과가 좋아 기분이 상쾌하다"고 웃었다.

차아리는 1988년 창단 후 유도 명문교로 올라선 영선중의 에이스다. 지난 1월에는 전북체육포럼으로부터 장학금을 받기도 했다. 차아리는 초등학교 때 부모님의 권유로 유도를 시작했다. "처음에는 유도라는 거친 운동을 좋아하지 않을 때가 있었다. 하지만 대회에 나가 메달을 따고, 승리의 짜릿함을 알게 되면서 유도가 좋아졌다"고 말했다.

영선중 염소현(28) 유도부 코치는 "차아리는 항상 성실하고 열심히 하는 친구다. 그래서인지 대회에 나갈 때마다 자신감이 넘친다"고 설명했다. 차아리는 그 자신감이 모두 염 코치 덕분이라고 했다. 차아리는 "코치님이 없었다면 저는 좋은 선수가 되지 못했을 것이다. 항상 옆에서 조언을 해주시고, 힘들 때 저를 이끌어주신다. 정말 도움을 많이 받는다"고 고마워했다. 차아리는 또, "부모님도 집에 갈 때 마다 맛있는 음식을 해주시고 잘했다고 격려해주신다. 대회 때 찾아오셔서 응원도 해주신다"고 말했다.

차아리는 어린 나이에도 상대를 제압하는 노련미가 있다. 이번 전국소년체육대회 동안 한판승이 한 번 밖에 없었지만, 필요할 때마다 결정적인 기술을 집어넣었다.

차아리는 "앞으로는 한판승도 많이 거두고 싶다. 고기를 꾸준히 먹으면서 힘을 기르도록 하겠다"고 웃었다.

차아리는 올해 금빛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유도 유망주다. 2018 순천만국가정원컵 유도 대회에서 1위를 차지했고, 2018 춘계 초·중·고등학교 유도연맹전에서는 준우승을 거뒀다. 염소현 코치는 "차아리가 지금 같이 해준다면 분명 좋은 선수가 될 수 있다"고 확신했다.

차아리도 같은 마음이다. 한국 여자유도를 대표하는 선수로 꼭 성장하겠다고 약속했다. 차아리는 "나중에 커서 올림픽에 도전하고 싶다. 올림픽에서도 금메달을 따고 싶다"고 힘줘 말했다.

세계 곳곳서 한국 유도 맹위

파리 그랜드슬램 유도대회

안바울·김민정 금메달 수확

금메달	남자 66kg이하급 안바울(남양주시청)	여자 78kg이상급 김민정(렛츠런유도단)
은메달	남자 81kg이하급 이승수(남자대표팀) 남자 100kg이상급 김성민(렛츠런유도단)	남자 100kg이하급 조구함(수원시청) 여자 48kg이하급 강유정(용인대)
동메달	남자 73kg이하급 안창림(남양주시청)	여자 57kg이하급 김지수(재일교포)

안바울 남자 66kg이하급 금메달

2월 10일부터 이틀동안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2018 파리 그랜드슬램 유도대회서 한국 대표팀은 금메달 2, 은메달4, 동메달 2개를 수확했다.

남자 66kg이하급서 안바울은 루리라예프(우즈벡스탄)을 업어치기 한판으로, 세이들(독일)를 업어치기 절반과 안뒤축걸기 절반 합해 한판으로 제압한후 이소다(일본)와 마루야마(일본)을 잇달아 반칙승(지도 3개)으로 뿌리치고 정상에 올랐다.

또 여자 78kg이상급에서 김민정은 아탕가나(카메룬)에 반칙승을 거두고 베이스(독일), 비세니(프랑스)를 잇달아 밭다리 걸기와 안다리 걸기 절반으로 따돌린후 결승서 왕얀(중국)에 반칙승(지도 3개)을 거두어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남자 81kg이하급에선 이승수가 이자로(프랑스)에 어깨로 메치기 한판승, 아자르(레바농)에 업어치기 한판승, 오트공바타르(몽골)에 어깨대 팔꺾기 한판승, 이바노프(불가리아)에 밭다리 후리기 한판승, 무실(체코)에 업어치기 한판승 등 다양한 기술로 5경기 통쾌한 한판승을 거두고 결승에 올랐으나 마지막 후지와라(일본)에 통한의 허벅다리 걸기 한판패를 당해 은메달에 그쳤다.

남자 100kg이하급 조구함도 하자스(슬로바키아)에 안뒤축걸기 한판승, 폰세카(포르투갈)와 파섹(스웨덴)에 반칙승(지도 3개), 마레(프랑스)에 업어치기 한판승을 거두었으나 결승서 코렐(네덜란드)에 기권패로 준우승에 그쳤다.

남자 100kg이상급에선 김성민이 콜스닉(우크라이나)에 발목받치기 절반승, 사르나키(몰란드)에 누르기 한판승, 루카스(체코)에 모로띄기 절반승을 거두었으나 결승서 가게우라(일본)에 안뒤축걸기 한판패를 당하고 주저 앉았다.

여자 48kg이하급서 강유정은 메르카디에르(프랑스)에 어개로 매치기 절반승, 뭉크바트(몽골)에 안뒤축걸기 절반승, 피구에로아(스페인)에 빗당겨치기 한판승을 거두고 결승에 올랐지만 빌로디드(우크라이나)에 누르기로 한판을 빼앗겨 2위에 머물렀다.

남자 73kg이하급 안창림은 라마넨(핀란드)에 업어치기 한판승, 두프라트(프랑스)에 반칙승(지도3), 부트불(이스라엘)에 업어치기 절반승을 거두었으나 라샤(조이아)에 발뒤축걸기 한판으로 패해 패자전으로 밀렸으나 마르겔리돈(캐나다)에 안뒤축걸기 한판승을 거두어 동메달을 차지했다.

여자 57kg이하급 김지수도 베나로체(프랑스)에 업어치기 절반승, 쟈코바(코스타리카)에 누르기 한판승을 거두었지만 3회전서 네코다(영국)에 업어치기 되치기를 당해 패자전으로 밀려났다.

하지만 김은 몬테이로(포르투갈)에 반칙승(지도3),을 거두고 패자결승서 헬레네(프랑스)에 안다리 걸기 절반승을 거두어 동메달을 추가했다.

그밖에 나머지 선수들도 선전했지만 메달 획득에는 실패했다.

김민정 여자 78kg이상급 금메달

후허하오터 국제대회

안창림 · 곽동한 · 조구함 금메달

금3, 은2, 동 4개로 종합2위

아시안게임 앞두고 "파란불"

한국 유도 대표팀이 5월 25일부터 사흘동안 중국 후허하오터에서 열린 2018 국제유도연맹(IJF) 후허하오터 그랑프리 대회에서 금메달 3, 은메달 2, 동메달 4개를 수확하며 종합 2위에 올랐다.

그랑프리 대회가 세계선수권대회나 그랜드슬램보다 규모가 작은 대회지만, 이번 대회는 2020 도쿄올림픽 참가 자격 점수를 부여하는 첫 대회인 데다 오는 8월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전초전인지라 세계 최강 일본도 남녀 국가대표를 출전시켰다.

간판스타 안창림(남양주시청)과 중량급 '쌍두마차' 곽동한(26·하이원) 조구함(26·수원시청)이 나란히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안창림 세계1위 하시모토 연장끝 제압

'중량급 간판' 곽동한 조구함도 금메달

안창림(남양주시청)은 남자 73kg이하급 결승서 세계 랭킹 1위 하시모토(일본)를 연장 혈투 끝에 제압했다. 연장전에 나선 안창림은 주특기인 업어치기를 연달아 시도하며 하시모토를 위협하며 경기를 주도했다. 두 번째 공격을 시도한 시점부터 숨이 턱까지 차올라 매트에 드러눕기도 했다. 그러나 끝까지 집중력을 발휘한 그는 연장 4분7초에 기습적인 왼팔 업어치기로 골든스코어를 따냈다. 안창림은 하시모토와 역대전적에서도 동률(2승2패)을 이루었다.

곽동한은 남자 90kg이하급 결승에서 알탄반가나 간툴가(몽골)를 반칙승(지도 3개)으로 꺾고 우승했다. 이어 열린 100kg 이하급 결승에선 조구함이 카즈벡 잔키시에프(러시아)를 연장 혈투 끝에 업어치기 절반승을 거두었다.

여자부 김민정 강유정은 은메달

여자부에선 '헤비급 간판' 김민정(30·한국마사회)이 은메달을 따냈다. 여자 78kg이상급 결승에 나선 김민정은 아키라 소네(일본)에게 안다리걸기 절반을 내준 데 이어 누르기 절반을 허용하며 아쉬움을 삼켰다.

또 한국 여자 유도 간판 강유정(용인대)이 은메달을 추가했다. 강유정은 여자 48kg이하급 결승에서 일본 아미콘도에게 안아돌리기 절반패를 당해 아깝게 우승을 놓쳤다. 강유정은 1, 2회전을 모두 절반승으로 통과한 뒤 3회전에서 중국 팅 리우를 업어치기 한판으로 꺾고 준결승에 진출했다. 준결승에선 러시아 사비나 질리아조바를 업어치기 한판으로 꺾었다.

여자 52kg이하급에선 박다솔(순천시청)이 동메달을 차지했다. 박다솔은 3회전 중국 슈겐 우에게 반칙패로 무릎을 꿇었지만, 패자전에서 살아남은 뒤 동메달 결정전에서 미국 안젤리카 델가도를 팔가로누워꺾기 한판승으로 물리치고 시상대 위에 올랐다.

여자 57kg이하급 권유정(안산시청)과 남자 66kg이하급 간판 안바울(남양주시청)과 남자 81kg이하급 이승수(한국마사회)도 각각 동메달을 획득했다.

후허하오터 국제대회 입상자

금메달(3)	
남자 73kg이하급	안창림(남양주시청)
남자 90kg이하급	곽동한(하이원)
남자 100kg이하급	조구함(수원시청)
은메달(2)	
여자 78kg이상급	김민정(한국마사회)
여자 48kg이하급	강유정(용인대)
동메달(4)	
남자 66kg이하급	안바울(남양주시청)
남자 81kg이하급	이승수(한국마사회)
여자 52kg이하급	박다솔((순천시청)
여자 57klg이하급	권유정(안산시청)

안창림

안창림 남자 73kg이하급 금메달

곽동한은 남자 90kg이하급 금메달

조구함 100kg 이하급 금메달

2018 아시아유·청소년 선수권대회

청소년·유소년 나란히 금4개

청소년 금4, 은2, 동4개로
짭짤한 수확

5월 11일부터 나흘동안 레바논 베이루트에서 열린 2018 아시아 유·청소년 유도선수권대회서 한국은 청소년대회 금4, 은2, 동4개를, 유소년 대회서 금4, 은2, 동7개를 수확하는 큰 성과를 거두었다.

고교생 김민종
남자 100kg이상급서 정상 정복
전승범 김성은 김하윤도 금메달

남자 60kg이하급 전승범(용인대)은 간크후양(몽골)에 안뒤축걸기 한판승, 라우(홍콩)에 어깨로 메치기 한판승, 나르바에프(카자흐스탄)에 업어치기 절반승을 거둔후 결승서 알리(인도)를 업어치기 절반으로 눌러 우승했다.

남자 100kg이상급 김민종(보성고)은 사르바토프(카자흐스탄)에 누르기 한판, 아부 알틴(요르단)에 어깨로 메치기 한판, 말레크자데(시리아)에 업어치기 한판승을 거둔후 유수포프(우즈베키스탄)에 업어치기 절반승을 거두고 정상에 올랐다.

70kg이하급 김성은(한체대)도 1회전을 부전승으로 통과한 뒤 리우(타이페이)에 업어치기 절반승, 나르노바(카자흐스탄)에 업어치기 절반승을 거두고 가볍게 금메달을 추가했다.

78kg이상급 김하윤(한체대)는 일마토바(우스베키스탄)에 허리후리기 한판승, 네츠니코바(키르기스스탄)에 조르기 한판승을 거둔후 결승서 베르리카시(카자흐스탄)에 허리후리기 되치기 절반승을 거두고 최강자임을 확인했다.

박은송 박소연
은메달에 머물러

여자 57kg이하급 박은송(용인대)은 쉬레스타(네팔)에 안뒤축걸기 한판승, 아고조노바(우즈벨미스탄)에 업어치기 절반승을 거두고 결승에 진출했지만 카르차예바(카자흐스탄)에 업어치기 절반패를 당해 은메달에 머물렀다.

여자 78kg이하급 박소연(마산대)도베크스마티(레바논)에 반칙승, 나제르케(카자흐스탄)에 발뒤축걸기 한판승울 거두었으나 결승서 율다쉐바(우즈베키스탄)에 누르기 한판패를 당해 준우승에 그쳤다.

그밖에 남자 66kg이하급 김지훈(용인대), 남자 90kg이하급 한주엽(용인대),남자 100kg이하급 심재우(용인대)와 여자 52kg이하급 장윤진(한체대)는 동메달을 차지했다.

유소년 대회서는
금4, 은2, 동7개 다수확

한편 유소년대회 입상자는 다음과 같다.

금메달(4)	
남자 66kg이하급	김태모(경민고)
남자 81kg이하급	이남훈(주산산업고)
여자 57kg이하급	김주희(충북체육고)
여자 70kg이상급	박샛별(대구체육고)
은메달(2)	
여자 48kg이하급	허송림(서울체육고)
여자 52kg이하급	전수진(충북체육고)
동메달(7)	
남자 60kg이하급	하정우(경민고)
남자 73kg이하급	이준환(경민고)
남자 90kg이상급	박견우(서울체육고)
여자 44kg이하급	한수경(울산생활과학고)
여자 63kg이하급	신채원(대구체육고)
여자 70kg이하급	유현지(울산생활과학고)
여자 70kg이상급	김민주(광주체육고)

유도 전용 체육관 건립하는게 마지막 꿈

전남 유도회 임종안 회장

유도에도 지방분권 시대가 열리고 있다. 변방으로만 여겨지던 전남지역이 순천을 중심으로 유도의 메카로 급부상하고 있는 것. 3년 전부터 국내 대회 중 가장 큰 규모의 순천만 국가정원컵 대회를 개최하고 작년엔 순천시청 여자실업팀을 창단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전남 유도회를 찾았다. 순천시 팔마체육관 앞에 위치한 올림픽 기념관. 2층 사무실에서 취임 2년째를 맞은 임종안회장(69세)을 만나 전남 유도의 실상을 들어 보았다.

글/ 박진환(한국체육언론인회 이사)
사진/ 홍기웅(J&J미디어 기자)

스포츠맨보다 교육자다운 풍모

전북 익산에 살던 중3시절 유도경기를 구경하다가 관람석이 무너지는 바람에 타박상을 입은 적이 있다는 임회장은 그 트라우마 때문에 악몽을 꾸기도 했지만 결국은 50여년 유도와 인연을 맺게 됐다고 말문을 열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전주 상무관에 입관하며 도복을 입은 임회장은 용인대 유도학과를 졸업하고 잠시 경찰에 몸담기도 했으나 장흥 대덕중을 시작으로 순천낙안중, 삼산중, 순천공고 유도 팀을 창단한 지도교사로 2010년까지 30여년 교단에 몸을 담았다. 재직 기간중 중 가장 기억에 남는게 있다면 삼산중 창단 다음해에 전남 교육감기 유도대회에 우승하여 교직원이 만들어준 꽃다발을 목에 걸고 오프카 대신 픽업차 5대에 선수 전원 탑승하여 밴드부를 앞세워 경찰싸이카 호위 받으며 시가행진을 하여 유도에 대한 인식을 높인 것이 가장 기억이 남는다고 했다.

그 때문일까? 임회장은 스포츠맨 보다는 교육자다운 풍모가 짙게 드러나 보인다.

그동안 그를 거쳐간 유도 선수만 대략 300여명이라며 기억에 남는 제자로 지난 수년동안 전남 유도발전을 위해 함께 일하고 있는 김양호 순천시청 감독과 정필중 여수 시전초등학교 코치를 손꼽는다. 정필중 코치는 76회 포항 전국체전에서 경중량급(80kg)의 체구로 일반부 무제한급에 출전하여 금메달을 딸만큼 기술이 뛰어난 선수였으나 대학에서 힘든 훈련을 견디지 못해 선수생활을 포기했다고 아쉬워했다.

국제대회 10여차례 참가하며 선수 뒷바라지

임회장은 "전남 지역엔 25개의 전용 사설 유도체육관 있고 초등부 남녀 4개팀, 중등부 남녀 4개팀, 고등부 남녀 3개팀과 세한대학교 남자팀 등 엘리트 팀이 있지만 다른 지역에 비하면 팀이나 선수 수가 많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실토하고 "그럼에도 유명한 선수들을 많이 배출한 고장"이라고 자랑했다.

전 진천 선수촌 최종삼 촌장을 비롯 김상철 전 용인대 교수, 런던올림픽 남자유도 정훈 감독, 전 국가대표 황희태(충남경찰청) 김수환(전남 경찰청)과 현 국가대표 김성연(광주독시철도공사) 김지윤(동해시청) 김민정(한국마사회) 등이 모두 이지역 출신이다.

임회장은 2002년 아시아 청소년대회에 감독으로 참가한 것을 시작으로 그동안 10여차례 각종 국제대회에 임원, 연구원 자격으로 참가하기도 했다.

임회장은 "지난 매년 전남지역에 2-3개 전국 규모 유도대회를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고 매년 1월 에는 천년의 빛 영광에서 전국 남·여 중·고 유도선수를 초청 전지훈련을 하는등 몽골 청소년 대표 팀을 초청 국내 중·고교생전 지훈련을 비롯 수시로 훈련 캠프를 개설하여 유도 발전을 위해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자평하고 "남은 임기동안 지역인사 및 단체장들과 협의하여 유도 전용 체육관을 꼭 건립하고 싶다"고 밝혔다.

임회장은 교사로 발령받는 곳마다 유도 팀을 창단하고 선수들을 지도하는 한편 유도행정에도 깊이 관여, 2001년 순천시 유도회장, 2003년 중고연맹 부회장을 역임하고 전남유도회 경기이사, 심판위원장, 부회장을 거쳐 2016년부터 회장을 맡고 있다. 또 15년째 대한유도회 심의위원과 전남경찰청 무도연구 지도관으로 봉사하고 있다.

'채우려 노력은 하되 부족한 듯 채워진 것에 감사할 줄 알자"는 좌우명대로 살아 왔다는 임회장은 "결과보다는 과정에 최선을 다했다면 다시 역전의 기회를 잡을 수 있다. 실패는 소중한 경험이며 실패의 경험을 살려 더 잘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고 유도선수들에게 충고하기도 했다.

임회장은 20여년 만에 사업에 성공한 옛 제자를 만났을 때 그 제자가 선수로선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지만 유도로 다져진 승부욕, 근성, 끈기로 사업에 성공할 수 있었다고 말해주어 지도자로서 보람을 느꼈다면서 정작 자신은 "그가 선수로서 대성하고 싶은 큰 꿈이 있었는데 몰라줘서 항상 미안한 마음이었다"고 털어 놓았다.

아내와 함께 유도경기 참관 하는게 큰 낙

요즘은 아내와 함께 유도경기 참관하러 다니는 것도 큰 낙중 하나라고. 경기장에서 만난 제자들이 정작 자신보다 아내에게 더 애틋하게 대한다면서 중고 지도자 시절엔 선수들이 자기 집에서 먹고 자고 하는게 다반사였고 그때 아내와 정이 많이든 때문이라며 흐뭇한 미소를 짓는다.

1남 1녀를 두었지만 모두 출가했고 손자만 3명. 아마 5단의 바둑실력과 동네 뒷산을 하루 한번씩 산책하며 체력관리를 하는 게 취미라면 취미. 유도는 공인 9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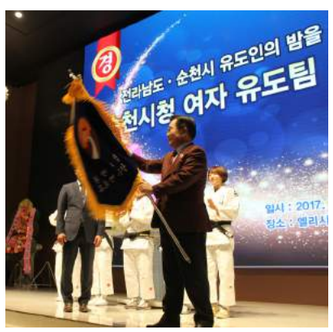
녹조근정훈장, 체육훈장 백마장을 비롯 체육부장관 표창, 도지사, 교육감 표창 등 그가 유도 지도자로서, 교육자로서 받은 상훈은 이력서를 가득 메우고도 남는다.

임회장은 끝으로 "유도 수련으로 얻은 자기 통제력, 인내와 체력으로 평생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왔다. 다음에 태어나도 유도 수련은 계속할거 같다"며 말을 마쳤다.

여자 실업유도에 새바람 순천시청

유도 메카로 떠오르고 있는 순천지역에 여자유도 실업팀이 창단되어 새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순천시청 여자유도팀은 작년 12월 9일 순천 엘리시아 웨딩컨벤션에서 조충훈 순천시장과 김홍식 전남체육회장 직무대행, 임종기 순천시의회 의장, 김진도 대한유도회장, 임종안 전남유도회장을 비롯한 순천시 체육임원 및 유도 가족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단식을 갖고 본격 출범했다.

글/ 박진환(한국체육언론인회 이사) 사진/ 홍기웅(J&J미디어 기자)



아시안게임 대표 박다솔 등
선수 5명으로 창단

김양호 전남유도회 전무이사가 감독을 맡고 올 자카르타 아시안게임 국가대표로 선발된 박다솔(52kg이하급)을 중심으로 고하림(48kg이하급)과 그동안 전남체육회에 소속되어 있던 권미성(63kg이하급) 서하나(57kg이하급) 윤영주(78kg이상급) 등 선수 5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내년에는 여수정보과학고 출신인 48kg이하급 강유정(용인대)도 대학졸업 후 입단할 예정이다.

또한 향후 2~3년 동안 지역 출신 우수선수 영입을 통해 팀을 보강해 나갈 계획이다.

2016년부터 순천만컵 대회를 개최해온 순천시는 그해 6월 체육인 간담회를 통해 올림픽 종목중 한개 종목을 선정해서 팀을 만들기로 의견을 모았고, 특히 조충훈 시장이 유도에 깊은 관심을 보여 그해 리우올림픽에 15명의 응원단을 파견해서 이고장 출신 김성연(광주도시철도공사)선수를 열렬히 응원했다.

그러나 김성연이 메달 획득에 실패하는 바람에 창단계획이 유야무야 되는 듯 싶었으나 작년 6월 다시 조시장이 창단 비용을 승인하고 적극성을 보여 전남 최초의 실업팀이 탄생하게 되었다.

전용 숙소 마련등
훈련 여건은 "최상"

김양호 감독은 "그동안 지역 실업팀이 없어 인재 유출이 심각해 아쉬웠다"며 "이제 유도인재들이 고향에 남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돼 다행이다"고 말했다.

실제로 국가대표로 활동중인 김성연(광주도시철도공사)은 순천, 김지윤(동해시청)은 보성, 김민정(한국 마사회)은 목포 출신으로 모두 전남 출신이지만 타지역 실업팀 선수로 활약하고 있다. 김 감독은 이어 "순천시청 팀 창단을 계기로 고등부 선수단의 안정적인 연계육성 시스템이 마련돼 전남 유도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순천시는 아직 전용체육관은 없지만 선수들의 숙소(아파트)를 마련하고 숙소근처 헬스클럽에서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각종 훈련장비 지급은 물론이다.

오후 3시부터 펼쳐지는 도복훈련은 순천공고 유도장을 활용하며 여수시청 남자실업팀, 순천공고 남자선수들이 훈련 파트너로 함께 땀을 흘리고 있다.

김양호 감독은 "올해 두차례 대회 단체전에 출전했지만 선수가 적고 대부분 경량급 선수들이라 1회전서 탈락했다"면서 "하지만 올 전국 체전에선 2-3개의 메달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남자선수들과 훈련중인 고하림은 "숙소에서 우리들이 직접 취사하는 번거로움이 있지만 그 어느때보다 훈련 여건은 좋다"며 "이제는 우리들이 성적으로 보답하는 일만 남았다"고 말했다.

온몸으로 부딪히며 웃음꽃 만발

순천 신대 우림유도관

건강에 관한 관심이 올라가면서, 생활체육을 즐기는 인구도 늘어났다. 유도 역시 확실한 운동 효과로 생활체육 느낌으로 즐기는 인구가 늘고 있다. 하지만 사람이 늘어나면 그만큼 허수도 있기 마련이다. 유행을 따라 시작했지만, 별다른 성과 없이 관두는 사람도 많다. 오늘 소개할 유도관은 이런 자세를 지양하고, 누구라도 배움을 얻어갈 수 있도록 노력 중이다. 아직 발걸음을 내디딘 지는 오래되지 않았지만, 확실한 목표와 함께 힘차게 나아가고 있는 '순천 신대 우림유도관' 이야기다.

글/ 서영욱(J&J미디어 기자)
사진/ 홍기웅(J&J미디어 기자)

"각오없이 들어오지 말고 배움없이 나가지 마라"

유도관에 들어서자 초등학생 관원들의 우렁찬 인사 소리가 유도관 내부를 가득 메웠다. 인사하는 초등학생 관원들의 표정은 웃음이 가득했다. 하지만 관원들의 밝은 표정 너머로 보이는 관훈은 그런 표정과는 거리가 멀었다. "각오없이 들어오지 말고 배움없이 나가지 마라"는 우림유도관의 관훈은 밝은 학생들의 표정만큼이나 시선을 사로잡았다.

이와 같은 관훈은 우림유도관 이홍곤(38) 관장의 지론을 반영한 작품이다. 이 관장은 유도관을 찾는 모든 관원이 전문 유도인을 꿈꾸는 건 아닐지라도, '유도'라는 운동을 가볍게 보지 않고, 단순 생활체육을 지향하는 건 아님을 분명히 했다.

이런 관훈 아래 우림유도관은 생활체육보다는 실제 유도 훈련에 가까운 프로그램으로 진행한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정해진 동작 위주로 펼쳐지며 월요일은 낙법, 화요일은 메치기, 수요일은 굳히기, 목요일은 이전에 배운 기술을 연결해서 활용하는 식이다. 금요일에는 관원들끼리 대련을 한다고 한다.

이처럼 요일별로 기술을 나눠서 진행하는 것 역시 조금이라도 더 제대로 유도를 가르치고자 하는 데에서 시작됐다. 우림유도관은 오후 6시부터 7시까지 초등부, 7시부터 8시까지는 중·고등학생과 성인이 훈련한다. 시간이 제한적이다 보니 한꺼번에 많은 동작을 가르치면 교육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이다. 특히 아직 어린 초등부의 경우는 배우는 속도가 더디기 때문에 기술을 세분화해서 가르치는 게 낫다는 게 이관장의 생각이었다.

소극적 성격이 자신감 충만으로 탈바꿈

시간이 제한적인 것도 있겠지만, 우림유도관은 어린 친구들이라고 하더라도 놀이 형식으로 배우는 장면은 거의 없었다. 이 관장은 기술을 가르치는 데 있어 사소한 부분 하나까지 짚어가며 관원들에게 설명했고, 이를 듣는 관원들의 태도 역시 진지했다. 쉬는 시간에는 초등학생답게 시끌시끌했지만, 기술 설명을 들을 때는 전혀 그런 모습을 볼 수 없었다.

우림유도관을 다니는 관원 절반 이상이 초등학생이었다. "내성적이거나 소극적인 친구들이 유도관에 많이 옵니다. 학교폭력이나 따돌림을 당해서 자신감이 결여된 친구들도 그중에 있죠. 이런 친구들이 달라지는 모습을 자주 봐왔습니다. 그럴 때면 뿌듯하죠. 자식들이 달라지는 걸 본 부모님들이 고맙다는 연락도 자주 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소개도 많이 해주시죠(웃음). 그래서 형제가 같이 다니는 경우도 많습니다. 긍정적으로 바뀌는 모습을 보고 믿음이 생긴 거죠." 이 관장이 내세우는 지론에 대한 믿음의 근거는 가까운 곳에 있었다.

실제로 형제가 함께 유도관을 다니고 있는 이승혁 군은 "제 몸을 보호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생기고 운동도 잘 돼요"라며 이 관장의 자신감을 뒷받침했다. 여기에 1시간이 넘는 거리를 대중교통을 활용해가며 다니는 학생도 있다고 하니, 우림유도관의 교육 효과는 확실하다고 봐도 무방할듯하다.

우림유도관은 선수를 꿈꾸는 사람에게도 열려있다. 이 관장은 "우리 유도관에서 엘리트 선수를 위한 훈련을 진행하지는 않지만, 만약 관원 중에 선수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도움을 줍니다. 순천이 유도 관련 연계 교육이 잘 되어있습니다. 순천 신흥초와 신흥중, 순천공고가 유도 팀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곳에 연결해드리죠"라고 말했다.

이 외에도 추가 훈련을 원하는 학생들을 위해 야간에 유도관을 개방하기도 한다. 최근 운동선수를 향한 교육이 중시되면서 절대적인 운동량 자체는 줄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채울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다. 이 관장은 이 선수들에게도 애정을 쏟으며 훈련과정을 지켜보고 도움을 준다. 여기서는 대학 1학년까지 했던 선수 생활과 5년간 선수 지도를 했던 경력이 빛을 발한다. 이 관장은 이 선수들이 출전하는 대회에도 찾아가 힘을 주기도 했다.

국제심판도 되고 국가대표도 키워보고 싶다

차근차근 그 규모를 키워가고 있는 우림유도관. 다만 성인 관원이 적은 점은 아쉬움을 표했다. 성인 관원이 적은 점에 대해 이 관장은 현실적인 문제를 이야기했다. 직장 때문에 기본적으로 시간을 내기가 힘들고, 저녁 약속 등으로 하루 이틀 빠지기 시작하면 다시 운동을 시작하기가 쉽지 않다는 게 그의 말이었다. 앞으로는 성인 관원의 비율도 높이는 게 유도관 운영상으로의 목표라고 밝힌 이 관장이었다.

그렇다면 관장으로서 바라는 더 높은 차원의 목표는 무엇일까? 앞으로의 목표에 관한 질문에 돌아온 이 관장의 대답은 생각보다 소박했다. "우선 지금 있는 친구들에게 최선을 다해 많은 걸 배우고 나갈 수 있게 하는 게 목표입니다. 물론 제 개인적으로 심판 자격증을 활용해 앞으로 국제심판으로도 활동하고 프로 선수들도 함께 지도하면서 국가대표를 키워보고 싶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함께하는 관원들에 집중해 그들이 달라지는 모습을 목격하는 것도 그에 못지않게 뿌듯한 일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유도인이 최고의 기량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선수와 지도자의 역량이 제일 중요하지만 의학적인 도움도 필요하므로 팀 닥터는 팀 구성의 필수요소라고 생각한다. 유도선수의 컨디션을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발생 가능한 손상을 예방한다든지 모르고 지나칠 수 있는 유도로 인한 손상을 정확하게 판단하여 지도자와 선수에게 알려줌으로서 선수가 최고의 기량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의사의 책무라 생각한다. 앞으로 대한유도회 소식지를 통하여 유도인이 알아두면 좋을 체력관리방법, 유도인에게 발생 가능한 손상을 이야기하면서 그에 대한 예방적 방법 및 치료 방법에 대하여 연재를 하고자 한다.

글 · 사진/ 이병창 대한유도회 의무위원장

이병창 의무위원장
익산 나은병원 병원장
대한유도회 의무위원장
대한정형외과학회 이사
대한골프의학연구회 회장
익산상공회의소 특별의원

부상 치료보다 예방

평소 컨디션 점검을…

고등학교 시절 나는 체육시간에 유도를 처음으로 접하였고 나름으로 재미있게 열심히 했던 것으로 기억이 된다. 고교시절과 함께 한 명성 유도관이 지금은 없어졌으나, 나의 추억의 한켠에 선명하게 자리하고 있다. 엄격하면서 열정적으로 지도해주신 김영기 체육선생님이자 관장님이 지금도 그립고, 현재 다리가 불편하시지만 정정하시다고 하니 다행이다.

고교 졸업 후 난 의과대학에 진학하여 의사의 길을 걷게 되었고 지금은 전라북도 익산에서 어깨관절과 스포츠 의학을 전문으로 하는 나은병원을 경영하고 있다.

항상 열정적인 삶을 추구하고 사람 만나기를 좋아하던 나는 2008년 봄에 모교인 남성고등학교에 체육교사로 근무 중인 한영호 선생님을 만나면서 다시 유도와의 인연이 시작되었다. 예의 있고 의리 있는 한 선생님을 만나 많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유도인의 삶과 철학을 느꼈고, 개인적으로 유도에 대한 관심이 점차 늘어가던 중에 한 선생님의 소개로 그 당시 대한유도회 조용철 전무이사님과 국가대표 유도대표팀 정훈감독과 인연이 시작되었고, 참 유도인의 멋진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인연을 소중하게 이어왔다.

또한 조용철 상임부회장과 선천종 전무이사의 추천으로 2016년 11월 24일 대한유도회 김진도 회장님으로부터 의무위원장으로 선임되는 영광을 얻었으니 유도와의 인연의 소중함과 함께 막중한 책임감이 몰려왔다.

'팀 닥터'로 2009 로테르담 세계선수권대회 동행

스포츠 의학을 전공한 의료인들의 꿈은 엘리트 스포츠 팀의 건강을 책임지는 팀닥터로 활동하거나 운동을 좋아하는 동호인들에게 의료자문 및 의료봉사를 하는 것 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

2009년에 평소 생각하고 있던 기회가 나에게 찾아왔다. 당시 대표팀 감독으로 부터 8월 26일에서 30일까지 네덜란드 로테르담 세계유도선수권대회에 대한민국 유도대표팀의 팀 닥터로 같이 가자는 연락이 왔다. 10일 정도 병원을 비우는 것이 쉽지 않은 결정이었지만 가슴에 태극마크를 달고 있는 대한민국 대표선수들과 함께 한다는 기대감으로 동참하기로 결정하였다. 당시 대한유도회 김정행 회장님, 임원 및 남녀 대표선수들과 함께 네덜란드 로테르담에 도착하여 10일 간의 일정을 무난하게 보냈다고 생각된다. 남녀 종합성적으로는 금메달 2개와 동메달 3개로 유도 종주국 일본에 이어 2위를 했지만 남자선수로는 금메달 2개와 동메달 1개로 일본을 제치고 1위를 하였으니 역대 최고의 세계선수권대회가 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대회 중 가장 인상적인 시합은 남자 73kg이하급의 왕기춘 선수와 북한의 김철수 선수의 결승전 경기였다고 생각하며 우리선수가 금메달을 획득했지만 김철수 선수가 금메달을 목에 걸었어도 크게 아쉬운 마음은 들지 않았으리라 생각을 해본다. 가장 아쉬운 시합은 남자 60kg이하급 최민호 선수의

시합으로 생각된다. 최민호는 올림픽 휴유증도 극복했고 평소 고민이던 체중조절도 잘되어 금메달 기대했으나 예상치 못하게 첫 시합에서 패하였으니 선수단뿐 아니라 본인도 큰 충격을 받았을 것이다. 덕분에 나와 지낼 수 있는 시간이 많아져 유도인의 삶에 대하여 많은 이야기를 하게 되었고 유도인의 고민에 대하여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팀 닥터인 나로서는 선수들이 큰 부상이 없는 것으로도 행복한 일인데 성적까지 최고이니 선수단 전체가 행복한 모습이었으며 나 역시 마치 내가 금메달을 목에 둘러멘 선수처럼 뿌듯한 마음을 숨길 수가 없었다. 최고의 성적에 걸맞게 암스테르담에 있는 네덜란드 영사관에서 대한민국 선수단 전체를 초청하여 환영만찬에 참석하는 개인적인 영광도 누렸다. 아쉬운 점은 의사가 팀 닥터로 세계유도선수권대회에 참여한 것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니 앞으로는 더 많은 동료의사들이 팀 닥터로서 참여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다.

김재범 진통제맞고 '부상 투혼' 동메달

귀국하여 메스컴을 보니 "남자 81kg이하급 김재범 선수, 갈비뼈 부상을 이기고 동메달". 물론 금메달을 예상했던 선수가 동메달이니 실망한 점도 이해는 되지만, 나의 생각으로는 금메달 보다 더욱 값진 동메달이라고 생각한다.

사실은 이렇다!

김재범 선수가 8강전에서 승리를 한 후, 대표팀 감독이 팀 닥터인 나에게 재범이가 옆구리 부위에 부상이 있는 것 같으니 확인해 달라고 요청이 와서 치료실에서 진찰을 한 결과 적어도 2개 정도의 늑골이 골절되어 있었고 심한 통증을 호소하고 있었다. 다음 준결승 경기는 10분 정도 남아있는 상태였으므로, 난 신중하게 생각을 한 후 먼저 감독에게 재범이의 상태를 설명하고 아무래도 시합을 멈추는 것이 좋겠다고 제안을 하고 재범이에게 물었다. 통증은 견딜만하냐? 많이 아픕니다. 호흡은 어떠냐? 숨은 쉴만합니다. 다음 경기는 어떻게 할꺼냐? 선생님이 통증만 덜어주면 꼭 하고 싶습니다. 부탁합니다. 선수 본인은 결의를 보였으나 나는 순간 고민했다. 만약 시합을 강행하다 부러진 늑골이 주변 장기를 손상시키면 큰 일이 발생할 수 있고 선수의 생명을 단축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멈추는 것이 제일 좋으나 재범이는 하겠다고 하니... 잠시 고민을 하고 감독과 상의한 결과 재범이의 뜻에 따르기로 했다. 이제는 어떻게 통증을 치료하느냐가 문제였다. 가지고 온 응급함에는 도핑에 문제가 되지 않는 진통소염제 종류였고 이 또한 약의 효과가 나타나려면 최소 30분은 경과해야하는데 시합은 10분 남았으니 사용하기 적합하지 않았다. 이때 불현듯 생각난 것이 혹시 시합 중 열상으로 피부 봉합이 필요할까 해서 가져온 물품 속의 국소마취제 리도카인이 었다. 늑골골절을 모르고 있던 재범이에게 통증을 줄이는 주사라 거짓말 하고 약 10CC 정도를 골절 부위를 따라 주입하였다. 통증은 곧 사라졌고 재범이는 웃으며 시합할 수 있겠다며 좋아했다. 당시에는 팀 닥터는 선수와 시합장에 들어갈 수 있어서 경기장에 감독과 함께 입장하여 시합대기석에 앉아있는데 진행 중인 시합이 길어져 시간이 지체되었으며 재범이가 옆에 있는 나에게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선생님 옆구리가 다시 아파오는데요 하며 물어왔다. 리도카인은 작용시간이 길지 않아 곧 통증이 다시 올 것을 알고 있던 나는 멋쩍은 표정으로 재범아 어쩌겠냐 여기까지 들어왔는데 그냥 해야지 그리고 참기 힘들면 내려오라고 당부를 했다. 그렇게 재범이는 메트 위로 올라갔으며 놀랍게도 준결승전에서는 패하여 결승전에는 진출하지 못했으나 3-4위전에서 늑골 골절의 고통을 이겨내고 승리하여 대한민국에 값진 동메달을 선사했다. 참으로 대견하다. 그리고 재범이이게 그 당시 늑골 골절에 대하여 거짓말해서 미안했다고 다시 한 번 전하고 싶다.

동호인 등록시스템 접속 방법

01. 동호인 등록시스템 접속 방법

대한유도회 홈페이지 접속 후
“대회참가신청” 버튼을 클릭하세요.

02. 로그인

“대회참가신청” 버튼을 클릭하면,
로그인 화면이 나옵니다.
해당 체육관의 팀 코드와 비밀번호를 입력 후
로그인 버튼을 클릭하세요.
초기 비밀번호는 팀 코드와 동일합니다.

03. 메뉴선택 게이트 홈

왼쪽의 “동호인등록 신청/내역” 버튼을
클릭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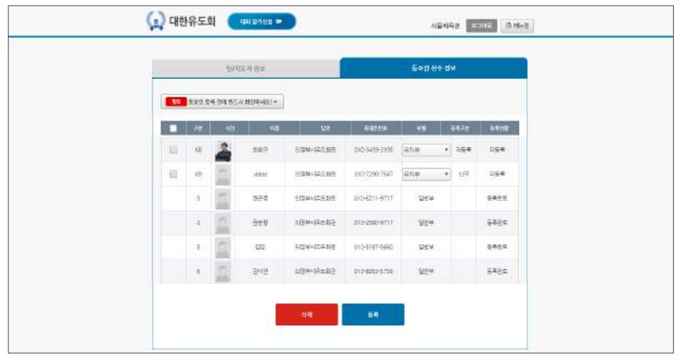
04. 등록화면(팀/지도자 정보)

팀(체육관), 지도자 정보 등록시
반드시 [필독]안내사항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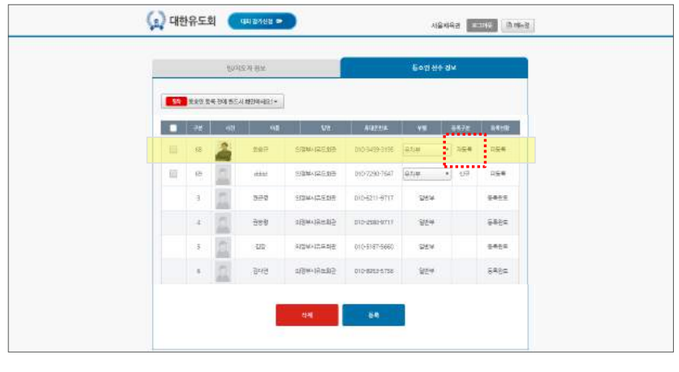
팀(체육관) 및 지도자 정보가 정확하게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해주세요.(지도자 구분 : 관장, 사범)
스포츠다이어리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후 APP 회원가입을 하시면 자동으로 본인 소속의 지도자 정보가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 본인 소속의 지도자 정보가 맞지 않을 경우, 스포츠다이어리 APP에서 정보변경을 해주세요.(마이 페이지 → 내 정보 관리)

05. 등록화면(동호인 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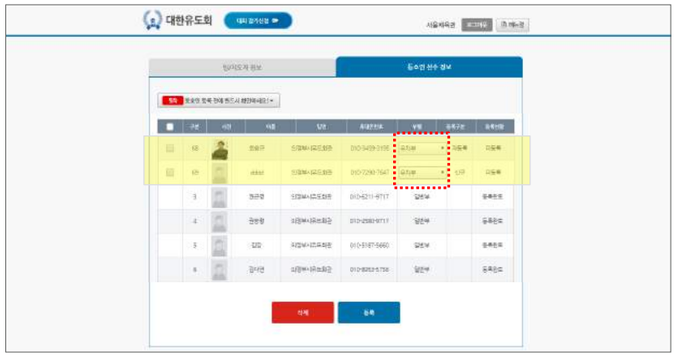
동호인 등록 전에 반드시 [필독] 안내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동호인 (관원)정보가
정확하게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해주세요.
※ 소속의 동호인 정보가 맞지 않거나 소속변경이 필요할 경우, 스포츠다이어리 APP 에서 정보변경을 할 수 있도록 해당 동호인에게 요청해주세요. (마이페이지 → 내정보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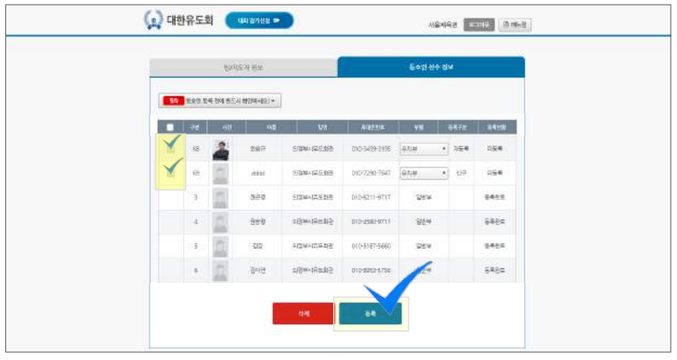


동호인(관원)이 팀(체육관) 이적을 했을 경우 스포츠다이어리 APP에서 소속변경을 신청한 팀 내역으로 변경되어 노출됩니다 .
이때, 해당 년도에 동호인 등록을 한번이라도 등록 / 결제 내역이 있는 동호인은 “재등록”이라고 자동으로 표시되며, 팀(체육관)을 변경한 동호인 팀(체육관)의 지도자는 “재등록 / 결제” 절차를 걸쳐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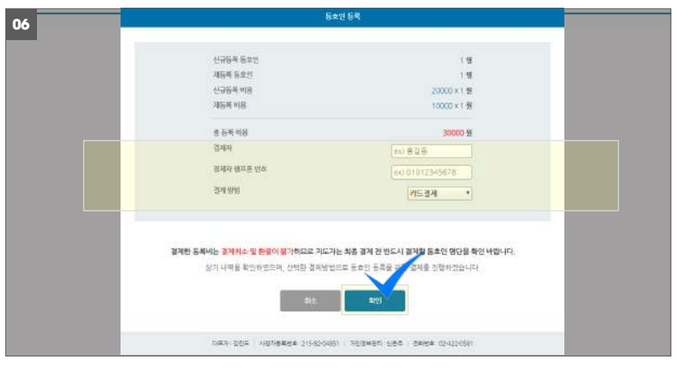


동호인 등록 / 결제를 하게 되면
전국 생활체육 유도대회에 출전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게 됩니다.
대회참가신청시 등록내용의 정보와 일치해야
하므로 동호인 등록 신청시 해당 동호인의
부서를 정확하게 선택해주세요.
※ 등록 / 결제가 안된 동호인은
리스트 제일 상단에 배치되며,
등록이 완료되면
이름 가나다 순으로 정렬됩니다.

해당 동호인명단을 클릭하시면
동호인의 프로필 사진 → 사진추가를 통해
PC 에 저장되어 있는 사진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
동호인의 사진은 등록 / 결제 완료 이후에
“동호인 등록증” 제작 / 발급되며,
팀(체육관)으로 월말 일괄 발송됩니다.
※ 본인을 증명할 수 없는 사진이나 사물사진은
대회출전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권장사이즈 : 354px × 472px, 반명함)



등록 / 결제할 동호인 정보를 체크한 후
“등록” 버튼을 클릭하세요.



06. 결제화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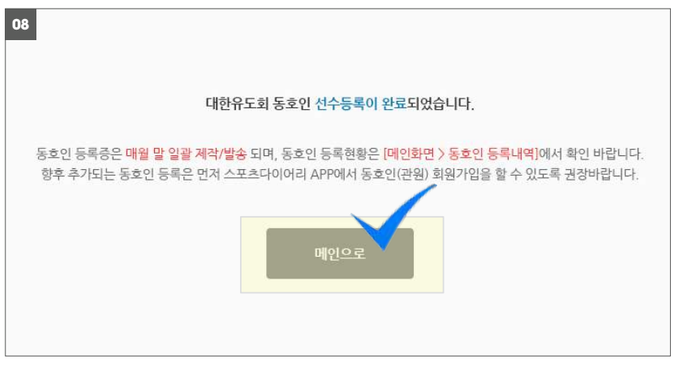
등록할 인원수, 결제금액을 꼼꼼하게 확인 후
“결제자, 결제자 핸드폰번호”와
“결제방법(카드결제)을 선택해주세요.
※ 신규등록 20,000원
재등록(신규등록 이후 팀(체육관) 이적 시)
10,000 원

동호인 등록비는 결제 이후의
결제취소 또는 환불이 불가하오니
신중하게 확인 후 결제바랍니다.

07. 결제 시스템 화면

결제시스템 이용약관 동의에 체크 후
다음버튼을 클릭하세요.

결제시스템 이용약관 동의에 체크 후
다음버튼을 클릭하세요.



08. 동호인 등록 / 결제 완료

등록 / 결제 완료 후 “메인버튼”을 클릭하면
초기화면으로 이동됩니다 .
바로 대회 참가신청을 원하시면 상단의
“대회참가신청” 바로가기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2018 정기대의원총회(1월 26일)

1 2018 정기대의원총회 개최

2018년도 정기대의원총회가 1월 26일 오후 4시 30분, 올림픽파크텔 체육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20명의 대의원 중 18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총회에서는 분과위원장 선임 보고, 각종 규정 개정 보고, 2018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 보고, 2017년도 사업 및 회계에 대한 감사보고가 있었으며, 심의사항으로는 정관개정 심의의 건, 상임이사회 구성의 건, 2017년도 사업 및 결산 승인의 건이 있었다. 정관 개정의 주요 사항은 상임이사회 구성 관련 조항 신설과 임원증원 관련 근거 조항 신설이며, 상임이사회 구성은 관련 조항 신설에 따라 총회 의결과 체육회 승인을 받아 구성하기로 하였다.

2 2018 유도인의 밤 개최

2018 유도인의 밤 행사가 1월 26일, 올림픽파크텔 올림피아홀에서 개최됐다.
이번 행사에는 전국의 유도인 200여명이 참석했으며, 김진도 본회 회장의 인사말, 조재기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과 전충렬 대한체육회 사무총장의 축사가 있었다.
또한, 2017년 한해 동안 유도발전에 기여한 유공자에 대한 표창식이 함께 열렸다.
이날 열린 유공자 표창식에서 2017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금메달과 세계선수권대회 동메달을 획득한 안바울(남양주시청)이 2016년에 이어 최우수선수상을 받는 영광을 차지했으며, 각종 국제대회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우수선수 14명과 한국 초중고유도연맹에서 추천한 우수선수 3명을 비롯해 우수단체 10팀, 우수지도자 10명에 대한 경기상 시상과 시도지부 및 연맹 유공자, 국제대회 유공자, 모범심판에 대한 공로패 수여가 있었다.

2018 유도인의 밤(1월 26일)

최우수상 안바울 선수

<2017년도 표창유공자 명단>

최우수선수상	안바울(남양주시청)
우수선수상	이승수(여수시청), 강유정(용인대), 김지수(재일교포), 한미진(용인대), 강헌철(용인대), 안창림(수원시청), 김민정(렛츠런파크), 권유정(한국체대), 조구함(수원시청), 곽동한(하이원), 김민종(보성고), 한희주(용인대), 정보경(안산시청), 김성민(렛츠런파크)
경기상 (우수단체)	흥덕초(남초부), 동남초(여초부), 전북중(남중부), 영선중(여중부), 보성고(남고부), 경민IT고(여고부), 용인대(남대부), 용인대(여대부), 국군체육부대(남일반부), 충북도청(여일반부)
지도상	이효열(남초부), 홍다미(여초부), 정재훈(남중부), 김지혜(여중부), 이상은(남고부), 유경훈(여고부), 장성호(남대부), 조준호(여대부), 전만배(남일반부), 정준호(여일반부)
공로패	박종양(서울), 이명호(부산), 정성원(대구), 변종구(인천), 오 헌(광주), 김종선(대전), 박경식(울산), 이종승(세종), 이호장(경기), 박태원(강원), 류해권(충남), 최종성(충북), 정철(전남), 유기섭(전북), 강태형(경남), 문철호(경북), 김희철(제주), 박성용(초중고연맹), 윤현(대학), 김재식(실업)
국제대회 유공자	이무희(세계선수권대회 단장/ 한국초중고유도연맹 회장) 선찬종(유러피안컵말라가대회 단장/ 대한유도회 전무이사)
모범심판	정현택(한국체대), 전만배(국군체육부대), 신상민(우석대)

3 제37대 집행부 제4, 5, 6차 이사회 개최

대한유도회 제37대 집행부 제4, 5, 6차 이사회가 아래와 같이 개최됐다.
먼저, 제4차 이사회가 재적임원 25명 중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1월 18일 오후 2시, 강원도 동해시 체육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4차 이사회에서는 주요 국제대회 파견 사업, 국내대회 개최 사업, 기타 사업에 대한 보고가 있었으며, 심의사항으로는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개정의 건, 국가대표 선발 규정 개정의 건, 심의위원회 규정 개정의 건, 정관 개정(안)심의의 건, 동호인 등록제도 실시 및 등록비 부과 심의의 건, 표창대상자 선정 승인의 건, 2017년도 사업 및 결산 상정안 심의의 건, 2018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의 건, 과실금 사용 승인의 건이 있었다. 심의결과 동호인 등록제도는 생활체육회 동호인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생활체육화 활성화를 위해 금년부터 실시하기로 하고 등록비는 생활체육 지원 사업 및 홍보비로 활용하기로 하였으며, 2018년 사업예산과 관련하여 올림픽 대비 국제교류비 예산을 추가해 47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다. 기타사항으로는 공로연금 지급액 상향 지급과 김도준 심판위원장 정년퇴임에 따른 신임 위원장 선임, 이사회 교통비 지급 등이 있었다.
제5차 이사회는 재적임원 25명 중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3월 12일 오후 1시, 전라남도 순천시 팔마실내체육관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5차 이사회에서는 주요 국제대회 파견 사업, 국내대회 개최 사업, 기타 사업에 대한 보고가 있었으며, 심의사항으로는 심의위원회 규정 개정의 건, 2018년도 예산 변경 승인의 건, 전국대회 신설 승인의 건이 있었다. 심의 결과, 2018년도 예산 변경과 관련하여 유도 100년사 편찬비를 4천만원 편성키로 하고 이에 대한 예산 변경을 승인하였고, KATA 수련자들의 저변 확대를 위해 회장배 전국KATA대회를 신설키로 하였다.
제6차 이사회는 재적임원 25명 중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5월 30일 오후 2시 20분, 한국유도원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6차 이사회에서는 주요 국제대회 파견 사업, 국내대회 개최 사업, 기타 사업에 대한 보고가 있었으며, 심의사항으로는 세계청소년선수권대회 파견의 건, 2018 세계선수권대회 남북단일팀 구성의 건, 대한체육회 기증 유도 매트 사용의 건이 있었다.
심의 결과 세계청소년선수권대회 파견의 건은 대회기간이 전국체육대회 기간과 인접해있고 개최장소까지의 이동거리를 고려해 파견을 취소키로 결정했으며, 남북 단일팀 구성의 건과 대한체육회 기증 유도 매트 사용의 건은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회장단에 위임키로 했다.

대한유도회 제37대 집행부 제4차 이사회

4 ‘동트는 동해’ 생활체육 유도대회 성황리 개최

대한유도회와 동해시가 주최하고 강원도 유도회, 동해시 유도회가 주관하는 ‘동트는 동해 2018 생활체육 전국 유도대회’가 1월 18일(목)부터 4일동안 동해체육관에서 열렸다.
이번 대회에는 7세 이하 유치부 선수부터 50세 이상 장년부 선수까지 총 1300여명의 선수가 출전했다.
개회식 종료 후 이훈(대한유도회 홍보 대사), 2012년 런던올림픽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김재범 선수,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딴 정다운 선수 등이 참여한 팬 사인회도 열려 눈길을 끌었다.
특히 이번 대회는 일선 유도체육관 관장님들로 구성된 대한유도회 생활체육위원들이 경기진행에 나섰다. 김재호(생활체육위원장), 함우형(강서유도관), 김은수(안양유도관), 이춘환(송탄유도관), 강춘열(여수유도관), 전만균(부산이글수유도관), 박지훈(빛고을 컴퍼니), 이도희(한국체육대학교), 최병태(한국유도관), 김 진(제천유도관) 총 10명의 위원들이 활약했다.

학교체육부문 최우수상 심완보 비봉고 교장

5 제64회 대한체육회 체육상 시상식

제64회 대한체육회 체육상 시상식이 2월 28일, 올림픽파크텔 올림피아홀에서 개최됐다.
이번 시상식에서는 1985년부터 2010년까지 비봉고등학교 유도부 감독을 이끌어오고 비봉중학교, 비봉고등학교를 거쳐 학교 유도부 발전을 위해 힘써온 심완보 비봉고등학교 교장이 학교생활부문 최우수선수상을 수상한 것을 비롯해 5명이 체육상을 수상했다.

- 학교체육부문(최우수상) - 심완보(비봉고등학교 교장)
- 생활체육부문(우수상) - 박노석(세종특별시유도회 회장)
- 경기부문(장려상) - 김민정(한국마사회)
- 지도부문(장려상) - 배상일(동해시청 감독)
- 공로부문(장려상) - 선찬종(남양주시청 감독)

6 2018년도 제1차 정기승단심사 실시

본회 2018년도 제1차 정기승단심사가 2월 28일에 실시됐다.
이번 심사에서는 9단 2명을 포함해 4,525명이 승단했다.
(승단자 명단 47P 참고)

<2017년도 표창유공자 명단>

9단	2명	3단	79명
8단	4명	2단	801명
7단	1명	소년2단	87명
6단	1명	초단	2,828명
5단	9명	소년초단	620명
4단	93명	계	4,525명

7 국제유도연맹 심판 및 지도자 세미나 파견

2018 국제유도연맹 심판 및 지도자 세미나가 1월 18일부터 22일까지 아랍에미레이트 아부다비에서 개최됐다. 이번 세미나에는 문원배 본회 상임심판위원장, 조인철 본회 남북교류협력위원장이 참석했다.

유도인 동정

김진도 회장 용인대 총장기찾아 선수들 격려

김진도 대한 유도회 회장이 사업상 바쁜중에도 유도장을 찾았다.
김회장은 5월 15일 양구문화체육관에서 열린 2018 용인대 총장기 중고유도대회 개막식에 참석한뒤 선수들과 대회 임원들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회장은 이날 "용인대 총장기 대회는 한국 유도의 주역으로 성장해가고 있는 중고 유도 유망주들이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마음껏 펼치는 자리"라고 치하하고 "모든 선수들이 부상없이 경기를 마치기 바란다"고 격려했다.

의암 강형원 선생의 감동적인 팔순잔치

지난 주말(5월 12일) 원로 유도인 의암(毅岩) 강형원 선생의 팔순잔치에 다녀왔다. 필자와 인연은 고등학교 때 은사로서 유도인들의 추앙을 받는 '거물'로 뜻 깊은 자리였다.
80세 고령에도 불구하고 체력이나 어떤 결정을 하는 사고력이 놀라울 정도다. 국내 몇 안 되는 9단의 고단자로 숱한 경험과 겸손에서 나오는 언행은 경지에 오른 인격체라 해도 부족함이 없다.
그래서 그는 충북 체육계 뿐 아니라 유도계에서 '어른'이란 칭호와 함께 '유도인의 영원한 스승'으로 존경을 받는다. 이날도 그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지역체육계 인사들을 비롯해 500여명의 제자들과 유도인들이 자리를 함께하며 '만수무강'을 비는 큰절을 올렸다.
무엇보다 팔순연의 의미가 너무나 아름답고 감동적이었다. 의암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나서 스승의 은덕(恩德)에 감사하는 마음에서 준비했다는 것이다. 환갑을 넘어 현직을 은퇴한 제자에서부터 지금도 선수육성을 위해 땀 흘리는 제자들까지 동참했다.
의암은 음성 맹동에서 출생해 한국유도대를 졸업한 직후인 1964년 유도인 양성소로 불리던 청석학원(현 대성학원)에서 지도자 생활을 시작해 92년 퇴직 때까지 35년여간 청소년 선수육성에 온몸을 바쳤다. 이후엔 충북유도회장, 대한유도회 심판위원장, 한국중고연맹회장, 한국유도원이사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에도 대한유도회 승단심의위원장을 맡는 등 원로로서 역할을 주저하지 않고 있다. 60여년을 유도판에서 살아온 삶이라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의 지도자 생활은 열정과 치열함의 대명사였다. 당시 한국사회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운동은 대부분 가정환경이 어려운 자녀들의 전유물이었다. 때문에 선수 발굴과정에서 가난 때문에 청주로 유학이 어려운 학생들은 어려운 신혼살림에 함께 숙식을 하며 애정어린 지도를 아끼지 않았다.
그 결과는 세계를 놀라게 했고, 청주를 '국제유도의 메카'로 만들었다. 한국 유도사상 첫 세계선수권대회(1980)를 제패한 박종학(청주대 교수)과 함께 이 대회 2연패(1994~6)에 이어 애틀란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목에 건 전기영(용인대 교수) 등이 그가 길러낸 대표적 옥동자다. 세계 정상급 선수를 무려 20여명을 길러 냈다. 이들이 올린 성적은 국내 대회를 차치하고 국제대회에서 80여 차례 입상하는 전무후무한 기록을 달성하며 국위선양에도 기여했다. 가히 입지전적인 업적이다. 유도인으로서 그가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었던 건 무엇일까. 다름아닌 스승으로서 자기희생을 감내한 열정과 신뢰였다. 선수를 지도함에 있어서는 뜨거운 열정으로 치열하게, 그리고 신뢰를 교감했기 때문이다. 모든 선수는 빈부와 관계없이 평등한 기회와 공정한 과정을 거쳐 인성을 함께 지도한 결과물이었다. '선생과 스승'은 같은 듯 하지만 다르다. 선생은 학문을 주로 가르치지만 스승은 학문에 인성까지 함께 가르치는 것을 애써 찾는다. 의암은 단순한 선생이기를 거부하고 '스승'을 선택해 엎어치기만이 아닌 인간의 도리인 인성을 가르친 것이다.
그래서 그는 누구보다 아름다운 팔순을 맞이할 수 있었다. 효(孝)·예(禮)가 부쩍 떠오르게 하는 가정의 달을 맞아 교훈의 삶으로 체육인들에게 울림을 주는 의암의 인생역정이 이전투구의 정치 현장에도 알려져 '각성제'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광형 충북유도회 부회장

유도인 동정

국제유도연맹 슈퍼바이저 선임된 전기영 용인대 교수

전기영 용인대 교수가 최근 국제유도연맹 심판위원회 슈퍼바이저로 선임됐다.

슈퍼바이저는 간단히 설명해 세계에 있는 심판들을 관리하고 지도하는 일이다.

용인대 총장기 대회 기간중에 만난 전기영 교수는 "1년에 열리는 국제대회가 총 20여 차례 정도 된다. 그 대회들을 모두 참여할 수 없지만, 절반은 가려고 노력한다. 국제대회에 많이 참여하는 편이어서 자연스레 제 역할도 늘어갔다. 경험을 점점 쌓은 덕분에 한국인 최초로 슈퍼바이저가 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국제대회는 변수가 많다. 여러 나라가 모이는 만큼 한 가지 장면을 놓고도 다양한 주장이 갈린다. 최근에는 판정 시스템도 빠르게 바뀌는 추세이기 때문에 더욱 복잡해졌다. 슈퍼바이저의 역할이 더 중요해졌다"고 설명했다.

전기영 용인대 교수는 한국 유도의 자존심이었다. '업어치기의 교본'이라는 별명으로 1990년대 남자 중량급 1인자로 군림한 뒤 세계선수권대회 3연패(1993년 78kg급·1995년 86kg급·1997년 86kg급)와 1996년 애틀랜타 올림픽 86kg급 금메달을 따냈다. 1995년 세계선수권대회에서는 체급을 86kg급으로 올리는 불리한 상황에서도 5경기 연속 한판승으로 우승해 두 체급 석권이라는 대기록을 남겼다. 또 이듬해 개최된 애틀랜타 올림픽에서도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애틀랜타 올림픽에서 1회전을 판정승으로 이긴 뒤 남은 경기를 모두 한판으로 승리해 '한판승의 사나이'로 불렸다.

전기영 교수는 1999년 현역에서 은퇴해 2005년 용인대 유도학과 교수로 임용됐다. 2006년 도하아시안게임과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서 대표팀 코치도 맡았다. 또 2015년에는 한국인으로 역대 처음으로 국제유도연맹(IJF) 명예의 전당에 헌액됐다. 전기영 교수는 현재 국제유도연맹 심판위원회 슈퍼바이저로 활동하고 있다.

쉴 틈 없는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전기영 교수이지만, 유도저변 확대와 후배 양성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 선수생활을 하면서 얻은 국내외 유도계 정보들, 또 최상급 선수들의 훈련 노하우 등이 유도계의 미래에도 훌륭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 판단했기 때문이다. 전기영 교수는 "선수 시절 금메달리스트로 여러 국제대회에 출전했고, 은퇴 후 국제유도연맹에서 일하다 보니 보는 시각이 넓어졌다. 한국 유도를 이끌어야겠다는 의무감에 열심히 뛰어다니고 있다. 국내에는 뛰어난 선수들이 많다. 그 선수들이 좋은 성적을 내야 유도의 흥행을 이끌 수 있다. 후배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싶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계획과 목표도 세웠다. 전기영 교수는 "세계무대에서 한국 유도의 위상이 높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만만치 않은 경쟁을 하고 있다. 많은 나라의 실력이 올라왔다. 그동안 아시아권에서 한국, 몽골 등 특정 국가만 유도에서 강세를 보여 왔다. 하지만 최근 압도적인 강팀을 꼽을 수 없을 정도로 여러 나라가 성장했다. 한국이 아시아에서 자존심을 지킨다고 해도, 세계선수권에서도 좋은 성적을 낼 의무가 있다. 이를 대비해 다른 국가들의 실력을 조사하고, 또 한국이 어떻게 국제무대에 나설지 대비하는 연구단이 생겼으면 한다. 국제무대에 나설 선수들만 노력해서 좋은 성적을 낸다는 보장이 없다. 당장 일본만 봐도 다른 나라 유도 선수들의 실력을 분석하고 연구하는 시스템이 잘 돼 있다. 한국도 이를 보고 배우고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전기영 교수는 "국내에서 메달리스트를 배출하는 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유도를 위해 일하고 싶은 생각이다. 유도 불모지에서 강의를 비롯한 여러 가르침을 통해 유도의 모든 것을 전파하고 싶다. 유도후배를 양성하는 일은 참으로 보람찬 일이다. 선수 시절에는 시간이 많지 않아 못했던 부분인데, 지금은 할 수 있어 행복하다. 유도계에 있는 많은 후배들이 은퇴 후에 가르침의 매력을 느꼈으면 한다"고 바랐다.

김혜은 변호사, 스포츠공정위원장으로 위촉

김혜은 변호사가 본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촉됐다. 김혜은 변호사는 광영여자고등학교, 연세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하였으며, 현재 충청북도 고문 변호사, 충북대학교 로스쿨 겸임 교수로 재임중이다.

정준호 감독, 경기위원장으로 위촉

정준호 충북도청 감독이 본회 경기위원장으로 위촉됐다.

제36대에 이어 제37대 집행부에서 경기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해온 정준호 감독은 심판위원장으로 자리를 옮긴 윤현 위원장의 뒤를 이어 경기위원회를 이끌어가게 됐다.

강현상·김희종 심판, 국제유도연맹 컨티넨탈 국제심판 자격 획득

강현상 심판

김희종 심판

강현상 심판(울산)과 김희종 심판(전남)이 국제유도연맹 컨티넨탈(Continental) 국제심판 자격을 획득했다. 강현상·김희종 심판은 지난 5월 13일부터 14일까지 실시된 국제유도연맹 국제심판 시험에 응시해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하였다.

윤현 교수, 심판위원장으로 위촉

윤현 용인대 교수가 본회 심판위원장으로 위촉됐다. 윤현 교수는 제37대 집행부에서 경기위원장으로 활동해왔으며 2017년말 정년퇴임한 김도준 전 심판위원장의 뒤를 이어 심판위원회를 이끌어가게 됐다.

2018 동계 전국 심판 및 지도자 강습회

기간 : 2018년 2월 5 ~ 6일 | 장소 : 용인대학교 단호홀 | 수료인원 : 728명

서울 103명	이홍원, 조대영, 박행남, 이종구, 김학동, 이정원, 박재기, 원유철, 이명상, 오주영, 옥치일, 정경락, 김대환, 정우식, 권성세, 김대현, 김락기, 신성모, 정현택, 전승훈, 김중태, 홍석일, 공윤식, 안종근, 신종호, 김유일, 김찬일, 이현수, 황봉열, 최재영, 유인기, 김성혜, 양창훈, 배형정, 주종윤, 이명주, 홍대희, 백종일, 이상은, 이석우, 전병철, 이흥덕, 이덕주, 유희정, 곽동욱, 이유준, 서윤석, 이상진, 김정석, 이동한, 현숙희, 차운성, 옹성진, 정재교, 신재천, 이우택, 서혜경, 이기모, 박수철, 김하경, 최재두, 이승원, 권영우, 이지은, 이창훈, 김민규, 신승민, 어민선, 김수진, 유경원, 김진상, 백승엽, 김민지, 홍승한, 윤영달, 강태훈, 정다운, 박민영, 김구연, 김형기, 조형수, 김태환, 김미연, 김왕식, 김찬우, 김정태, 장발규, 이문규, 이종덕, 이기환, 조민선, 김미경, 문창호, 권 혁, 김용환, 신현일, 김종원, 김봉준, 이태훈, 서하나, 허 웅, 조승권, 임종일
부산 42명	유승업, 고종필, 주영길, 김경현, 여연태, 손호근, 안국일, 홍영훈, 강경원, 주현중, 황재민, 진영호, 정세영, 장돌이, 이준희, 하만득, 조수정, 최희집, 성중경, 김재관, 황인수, 최해용, 김태윤, 유성철, 김보선, 정 혁, 강병진, 이지미, 김현진, 류현철, 김기범, 이승철, 손우성, 주성호, 전만균, 조진영, 진하나, 박서희, 조유익, 빈성민, 김성빈, 정영주
대구 29명	정장웅, 이창수, 김은식, 강선기, 이종대, 정양희, 박종률, 김정진, 이은학, 서영호, 정성원, 김도곤, 박준현, 정홍식, 이상석, 이건휘, 오주호, 배진범, 이정영, 유현욱, 강인호, 박선우, 김우선, 정동준, 박정인, 박서희, 송수근, 김상준, 안경욱
인천 26명	이호태, 이봉훈, 박도혁, 이상돈, 배상길, 유희준, 서윤석, 정 훈, 배정아, 임광영, 박미선, 지창언, 이철민, 허성민, 김상현, 이소정, 서은미, 이천동, 구흥모, 신기호, 김희진, 구 환, 최 천, 김현용, 전진희, 강한빛

유도인 동정

광주 9명	김기주, 신대철, 최 원, 설명환, 오양근, 김영래, 양은종, 이지연, 성태성
대전 24명	김성구, 안현석, 박한수, 김성남, 조정복, 손성필, 손현미, 김종선, 오승영, 김범식 유성연, 강태구, 현승훈, 김건아, 허재영, 박소희, 이상진, 양성우, 이은해, 김광선 권수길, 강수지, 전규비, 김석웅
울산 19명	고택선, 손양목, 최종득, 김영찬, 강현상, 이민호, 최재열, 한종수, 박순윤, 김경덕 최규진, 배효민, 윤제성, 이정선, 최남혁, 박해성, 오승엽, 김경협, 곽우정
세종 1명	박노석
경기 126명	정득락, 윤익선, 이홍연, 이상봉, 박희성, 한수희, 서임식, 김기천, 성주환, 정연형 유갑형, 유송근, 김순기, 이성수, 가기현, 김형익, 이명재, 정태호, 장순용, 정도운 박종성, 이용호, 문태웅, 배상흠, 유경훈, 홍동환, 이상호, 이춘관, 송재훈, 김진삼 정 훈, 두관철, 서명근, 조민호, 허우성, 이창헌, 김오태, 이선형, 윤길용, 김미정 이명주, 차상윤, 김 혁, 김영춘, 한순호, 이현경, 백상현, 김성섭, 양진호, 이종명 김민수, 박종환, 이준석, 오승용, 조근형, 박문찬, 김경진, 손정민, 김동준, 장성대 김진영, 김은수, 김미란, 장 혁, 유제윤, 김대현, 이양길, 전진호, 배강우, 김재훈 이동준, 이승희, 김민수, 강효봉, 이홍윤, 김선욱, 강금상, 오윤택, 최종석, 윤성현 전영해, 강조후, 김준웅, 박상훈, 고종한, 장준호, 채성훈, 김주유, 강서정, 김연중 황승빈, 황보배, 조현철, 박민호, 조준현, 조준호, 배진희, 박종원, 박성욱, 김원미 김지웅, 장민수, 성규진, 김종완, 정수덕, 조성욱, 최윤미, 이동교, 정재필, 김도준 조형수, 김건수, 선우경, 이준후, 원유신, 정성숙, 김창식, 김도윤, 최용신, 이강의 김선영, 서광필, 송은영, 방귀만, 김도경, 이상호
강원 43명	김영규, 오정석, 김건우, 김남준, 우학목, 정성기, 조문근, 정현국, 한상목, 이진수 장재심, 김준원, 윤경섭, 변성섭, 김영석, 정경하, 류지광, 정환구, 이재호. 김윤섭 최형석, 배수인, 용영중, 이종기, 손주영, 이승규, 최수진, 김주환, 김민영, 김광용 김진하, 황순용, 성경미, 안희천, 김진언, 현혜숙, 장호신, 이나영, 한영란, 이기태 여대일, 진순조, 이정익
충남 34명	김영배, 유영창, 유희권, 정상규, 김정규, 김기춘, 김용하, 김헌태, 임희대, 이기우 김재식, 전정원, 심광석, 나성찬, 이건휘, 이명복, 한승훈, 김용환, 정광진, 안병준 김태환, 조상훈, 이형엽, 최병화, 양원준, 김성희, 임호빈, 최서희, 이민구, 김주연 김다솜, 함정혁, 강신영, 이재준
충북 30명	노승찬, 하재은, 조도희, 최종성, 박준억, 정준호, 안효광, 박찬송, 고용희, 문호용 황철재, 천승호, 최성하, 어강선, 강호석, 김 진, 박서연, 박성호, 최성민, 최주식 조영우, 이성규, 정정연, 임태양, 박지영, 변상대, 이효열, 김영호, 이상묵, 김병주
전남 35명	채병성, 옥춘호, 김태흥, 김성태, 김양호, 강춘열, 유수현, 임채석, 김희종, 강장원 김대남, 정필중, 문선귀, 최성렬, 최성용, 양상훈, 정행률, 이창구, 이상현, 박성수 이홍곤, 윤태호, 노박환, 윤영주, 김윤식, 김상철, 권성훈, 권미성, 고하림, 박영은 김미래, 곽이식, 신희순, 손영기, 강인수
전북 34명	황은성, 이채사, 구상회, 나복균, 송재선, 신상민, 김광섭, 홍상범, 정영문, 정재훈 오민호, 홍기문, 박미자, 심재원, 이원산, 노용우, 유정용, 김정대, 김형철, 송규원 이진호, 하형덕, 문창식, 이지예, 정욱규, 손상호, 김미화, 김지혜, 김도영, 문용범 김민하, 염소현, 전영천, 박효주
경남 44명	김유기, 김영학, 채영수, 박영식, 이정일, 최승엽, 김종균, 옥경숙, 이지혜, 양세명 정세용, 진종연, 허교영, 안철순, 나용봉, 이길화, 안호진, 고광철, 서광훈, 이상만 이정렬, 박성모, 안수정, 김철규, 박성남, 김태홍, 김경환, 노영환, 김동건, 박용현 안준섭, 윤종석, 황 진, 정세헌, 정수지, 김남헌, 문소연, 김태휘, 홍주형, 박태건 좌성희, 김연우, 강태형, 김선길
경북 64명	황경환, 김경태, 문충국, 김용호, 신인수, 이무희, 강대진, 신동달, 김성태, 배낙호 이성탁, 양희철, 박태춘, 김시한, 이장희, 박훈식, 김예수, 박문태, 전만배, 윤종대 이동일, 장병석, 정찬수, 이강태, 채무기, 임남규, 전광수, 정창욱, 이정화, 조은복 손호진, 황성민, 신상호, 조태현, 최민호, 김대봉, 천성표, 조수희, 최성곤, 이지환 탁영석, 석정수, 이종호, 최동규, 허종원, 최금매, 박창용, 이보람, 이정식, 양제원 소 미, 정다운, 성경배, 성문기, 김원중, 최성연, 윤재순, 박성진, 박연지, 문석호 김교상, 신부식, 이상태, 구근회
제주 34명	강만순, 김태균, 유국상, 이경근, 김희철, 김진홍, 정영수, 김태홍, 임병기, 한민영 김경운, 홍창숙, 김형규, 현정철, 김상훈, 김성현, 이준철, 오상수, 문경철, 양우석 신민영, 김시홍, 김보성, 민건식, 이은석, 현후익, 김재범, 홍다미, 강명덕, 이동석 김영동, 신동훈, 김용철, 이승환
법무연수원 23명	조강식, 박노영, 석길영, 신동신, 정심건, 최문주, 류창우, 황진석, 김충호, 장영진 곽명규, 김준기, 형완우, 박성대, 박동수, 홍성훈, 추동민, 남명현, 김현탁, 정진욱 강현성, 정두교, 정원기
상임심판 8명	한순남, 조금묵, 김은희, 현다경, 오창길, 김대욱, 김준환, 정호영

유도인 경조사(2018년 1월 ~ 5월)

2월	
3일	박승용 서울시유도회 부회장 장남 결혼
14일	전만배 본회 지도위원장 모친상
24일	박승용 강원도유도회장 장녀 결혼
28일	이원희 용인대학교 교수 결혼
3월	
17일	최수길 본회 자문위원 자녀 결혼
4월	
22일	정정연 충북도청 코치 결혼
28일	정경민 전 국가대표 결혼
5월	
5일	김지윤 동해시청 선수 결혼
8일	이춘대 경북유도회 부회장 부인상

알 립 니 다

<유도>는 유도 선수, 지도자, 가족들이 함께 만드는 유도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소식지입니다.
<유도>지에 게재할 유도인들의 원고를 보내주세요. 각종 대회 참가기, 우리 팀이나 도장 자랑, 훈련 일기나 에피소드, 부상극복 수기, 나의 목표나 꿈 등 어떤 형식도 좋습니다. 사진과 함께 보내주시면 잘 가다듬어 보다 풍성한 <유도>지를 만들어 보답하겠습니다. 채택되면 소정의 원고료도 드립니다.

보내실곳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424 올림픽회관 504호 대한유도회
E-mail hongchs@naver.com / judo@sports.or.kr

2018 순천만국가정원컵전국유도대회(2018년 국가대표 2차 선발전 겸)

• 기간 : 2018년 3월 12일 ~ 16일(5일간) • 장소 : 전남, 순천팔마체육관

• 개인전 - 남일반부

체급 \ 순위	1위	2위	3위	
-60kg	이하림(용인대)	김원진(경남도청)	전승범(용인대)	김재현(한국체대)
-66kg	안바울(남양주시청)	윤용호(청주대)	서진환(경남도청)	함영진(수원시청)
-73kg	안창림(남양주시청)	안준성(용인대)	강헌철(용인대)	최훈(용인대)
-81kg	이승수(한국마사회)	홍석웅(용인시청)	송민기(경남도청)	채성희(양평군청)
-90kg	곽동한(하이원)	한경진(국군체육부대)	전준호(포항시청)	이재용(코레일)
-100kg	조구함(수원시청)	황민호(경찰체육단)	원종훈(양평군청)	김이현(코레일)
+100kg	김성민(한국마사회)	김민종(보성고)	최민영(코레일)	정지원(경남도청)

• 개인전 - 여일반부

체급 \ 순위	1위	2위	3위	
-48kg	정보경(안산시청)	강유정(용인대)	이혜경(광주도시철도공사)	장지영(제주도청)
-52kg	박다솔(순천시청)	하주희(고창군청)	남지영(안산시청)	장예진(동해시청)
-57kg	김잔디(포항시청)	정예린(용인대)	이재란(용인대)	박은송(용인대)
-63kg	한희주(용인대)	최은솔(인천시청)	김지정(한국체대)	지윤서(동해시청)
-70kg	김성연(광주도시철도공사)	정혜진(안산시청)	이예원(한국체대)	유지영(경남도청)
-78kg	윤현지(안산시청)	이정윤(용인대)	박유진(동해시청)	박은지(고창군청)
+78kg	김민정(한국마사회)	한미진(충북도청)	이은주(제주특별자치도청)	김하윤(한국체대)

• 개인전 - 남초부

체급 \ 순위	1위	2위	3위	
-36kg	임강현(부안초)	이은강(서울응암초)	전민성(신철원초)	전민균(신철원초)
-42kg	김용민(가납초)	윤승빈(신철원초)	정은우(문선초)	최성웅(순천신흥초)
-48kg	황재환(대구동성초)	LI CHANGMING(탑동초)	우영수(신금초)	박한민(납읍초)
-54kg	임형준(서울응암초)	문현석(인천남촌초)	노종학(인천남촌초)	안현우(도천초)
-60kg	허정재(보목초)	권한빈(흥덕초)	전동현(미포초)	임태균(외산초)
-66kg	김민준(철원초)	손혁준(미포초)	이중래(대소초)	이민수(제주북초)
+66kg	박지훈(인천서흥초)	홍성현(대소초)	박진화(명덕초)	김윤건(강정초)

• 개인전 - 여초부

체급 \ 순위	1위	2위	3위	
-36kg	신유미(보목초)	김민지(인천삼산초)	주수림(청계초)	조주희(신철원초)
-40kg	정수아(서울송중초)	홍규리(제주중앙초)	박소현(철원초)	-
-44kg	송가인(신금초)	한재영(광양마동초)	김은경(신철원초)	김연서(석수초)
-48kg	김세은(외산초)	조한슬(인천삼산초)	박성서(본촌초)	강은비(합천가산초)
-52kg	정혜영(철원초)	강나은(부안초)	박하은(홍덕초)	-
+52kg	이현지(신제주초)	한예주(신철원초)	임백합(대남초)	김지나(설천초)

• 개인전 - 남중부

체급 \ 순위	1위	2위	3위	
-45kg	김민기(안락중)	황혜성(보성중)	최영민(전북중)	박성수(안락중)
-48kg	하승우(관산중)	이태호(대전대성중)	김희수(외산중)	임명빈(서산중)
-51kg	천현준(통영중앙중)	두민재(보성중)	강성현(애월중)	임현수(부산체중)
-55kg	김민규(통영중앙중)	김덕훈(진량중)	박민택(보성중)	윤정빈(청주대성중)
-60kg	진선영(보성중)	한동규(안락중)	문규남(외산중)	허찬(부산체중)
-66kg	이도협(성남중)	최설빈(물금동아중)	김선우(안락중)	박현빈(제주제일중)
-73kg	김대현(덕원중)	고상범(보성중)	송동현(대천리중)	손승민(비봉중)
-81kg	김문수(서울체중)	김윤우(전북중)	장현호(연성중)	이도윤(경민중)
-90kg	김형석(전북중)	최진영(진량중)	백성민(보성중)	박승민(성산중)
+90kg	김주형(부평서중)	남대우(청주대성중)	박성근(전북중)	황영호(덕원중)

• 개인전 - 여중부

체급 \ 순위	1위	2위	3위	
-42kg	이혜원(영선중)	김담이(온양한올중)	송다빈(해동중)	-
-45kg	한지원(원당중)	정수진(입석중)	윤우미(신현여중)	최서영(순천신흥중)
-48kg	김근영(영선중)	김민정(위미중)	전찬비(물금동아중)	김성은(청라중)
-52kg	이예랑(통영중앙중)	정나리(안락중)	지가현(관산중)	남유리(부산체중)
-57kg	치아리(영선중)	박나연(남해여중)	김수연(순천신흥중)	김보경(순천신흥중)
-63kg	김지예(입석중)	추홍선(철원여중)	양지민(통영중앙중)	김민예(동지여중)
-70kg	윤하늘(신현여중)	김민주(영선중)	김호정(진량중)	정한나(무선중)
+70kg	김지영(관산중)	김다윤(물금동아중)	박지연(철원여중)	이경훈(부산체중)

• 개인전 - 남고부

체급 \ 순위	1위	2위	3위	
-55kg	안수현(창석고)	김승현(보성고)	윤선구(경민고)	송광일(도개고)
-60kg	하정우(경민고)	이태화(대전체고)	전민(경신고)	함우식(주문진고)
-66kg	김도형(원광고)	임교빈(충북체고)	김민수(금호공고)	박찬우(도개고)
-73kg	이준환(경민고)	조윤섭(덕원고)	김성현(도개고)	김도현(울산생과고)
-81kg	이윤상(광주체고)	김영승(보성고)	우찬식(성남고)	임성(금곡고)
-90kg	정다빈(금호공고)	정두(보성고)	김형진(명석고)	권혁규(경민고)
-100kg	김준규(계성고)	서익준(덕원고)	함정재(동지고)	이병연(보성고)
+100kg	배세진(비봉고)	송우혁(우석고)	박건우(서울체고)	김민규(명석고)

• 개인전 - 여고부

체급 \ 순위	1위	2위	3위	
-45kg	박소영(충북체육고)	황예진(광영여고)	좌시안(함덕고)	홍보현(주산산업고)
-48kg	김지연(충북체육고)	김보민(경기체육고)	한수경(울산생과고)	허승림(서울체육고)
-52kg	구소정(경민IT고)	장세윤(서울체고)	황수련(영선고)	장가은(영서고)
-57kg	김다은(충남체고)	강민정(삼정고)	이라겸(충북체고)	정아현(전북체고)
-63kg	채정아(서울체고)	정승아(경기체고)	이지현(철원여고)	김예람(도개고)
-70kg	유현지(울산생과고)	최지원(도개고)	김민경(울산생과고)	선채림(여수정과고)
-78kg	김주윤(울산생과고)	정나은(부산체고)	김유진(영선고)	이예은(서울체고)
+78kg	김다혜(여수정과고)	조은나라(경민IT고)	간다향(광영여고)	구은정(충남체고)

• 단체전

구분	1위	2위	3위	
남초부	미포초	인천남촌초	인천서흥초	외산초
여초부	남양주금곡초	철원초	신철원초	-
남중부	전북중	덕원중	순천신흥중	야음중
여중부	철원여중	입석중	순천신흥중	울산스파중
남고부	경민고	우석고	보성고	울산생과고

• 단체전

구분	1위	2위	3위	
여고부	경민IT고	광영여고	삼정고	경기체고
남대부	용인대	청주대	세한대	한양대
여대부	용인대	한국체육대	마산대	-
남일반부	양평군청	용인시청	여수시청	포항시청
여일반부	동해시청	고창군청	경남도청	충북도청

동트는동해 2018 생활체육유도대회 및 2018초등학교전국유도대회

• 기간 : ? • 장소 : ?

• 개인전 - 유치부

체급 \ 순위	1위	2위	3위	
-20kg	조우성(해운대유심)	-	-	-
-30kg	김우진(제천유도관)	김영진(안동유도관)	김이든(김재범유도관)	이도율(월드유도관)
+30kg	김나윤(상무유도관)	신서현(임장사유도장)	-	-

• 개인전 - 남초부(1~2학년)

체급 \ 순위	1위	2위	3위	
-25kg	임지범(의정부시유도회)	김규현(안동유도관)	김주성(K&D대현)	이주혁(용인대태극)
-30kg	김동찬(한성유도관)	권종수(용인대청룡)	-	강동우(울산한국유도관)
-35kg	박현수(용인대청룡)	조윤신(울산한국유도관)	천경호(하단유심유도관)	엄정현(대한유도관)
-40kg	조예찬(북삼초)	-	-	-
+40kg	이상훈(K&D대현)	조재민(울산한국유도관)	김태윤(상무유도관)	-

• 개인전 - 여초부(1~2학년)

체급 \ 순위	1위	2위	3위	
-25kg	안세이(청무유심유도관)	-	-	-
-30kg	박신영(상무유도관)	-	-	-
+30kg	장혜윤(청무유심유도관)	박은지(삼척유도관)	-	-

• 개인전 - 남초부(3~4학년)

체급 \ 순위	1위	2위	3위	
-30kg	이주현(부천용인대)	전성훈(탑동초)	김승기(북삼초)	하서준(하단유심유도관)
-35kg	김범수(부천용인대)	김은기(북삼초)	손건영(유도스쿨)	유준상(안동유도관)
-40kg	이준우(청무유심유도관)	김규태(안동유도관)	양태우(안산상무유도)	강서하(하단유심유도관)
-45kg	신동훈(안동유도관)	박준경(울산한국유도관)	정민환(청무유심유도관)	한건희(상무유도관)
-50kg	이재윤(해운대유심)	이규헌(금호유도관)	문기탁(상무유도관)	이정현(태백유도관)
-55kg	강경민(청무유심유도관)	이사무엘(의정부시유도회)	유현석(울산한국유도관)	-
+55kg	이승현(탑동초)	박민수(탑동초)	박민수(용인대청룡)	김우주(바른자세권성세)

• 개인전 - 여초부(3~4학년)

체급 \ 순위	1위	2위	3위	
-25kg	이예닮(태백유도관)	-	-	-
-35kg	방민지(북삼초)	김민서(안동유도관)	이원주(하단유심유도관)	이효주(하단유심유도관)
+40kg	김지현(산본유도관)	이나경(울산한국유도관)	박예슬(북삼초)	-

• 개인전 - 남초부(5~6학년)

체급 \ 순위	1위	2위	3위	
-35kg	남준영(상무유도관)	진태형(청무유심유도관)	허정훈(용인대청룡)	신건우(바른자세권성세)
-40kg	곽명진(양구유도관)	임수현(울산한국유도관)	김호영(동해유도회관)	-
-45kg	안준영(용인대금오)	김도균(제천유도관)	최성원(동해유도회관)	오세윤(바른자세권성세)
-50kg	안치원(대한경의)	권일오(대한유도관)	차원호(용인대청룡)	백건우(태백유도관)
-55kg	윤형인(용인대청룡)	이정재(금호유도관)	김정우(아산용인대충무)	최우진(유도스쿨)
-60kg	김민준(청무유심유도관)	노승우(금호유도관)	이은동(탑동초)	조대휘(태백유도관)
+60kg	조현준(청무유심유도관)	손은재(하단유심유도관)	김동현(바른자세권성세)	이윤성(용인대평택)

• 개인전 - 여초부(5~6학년)

체급 \ 순위	1위	2위	3위	
-40kg	김민경(안동유도관)	-	-	-
-50kg	김민경(하단유심유도관)	김형은(삼척유도관)	박찬희(울산한국유도관)	-
+50kg	이현지(하단유심유도관)	이지효(울산한국)	형은혜(남광유도관)	권근영(의정부시유도회)

• 개인전 - 남자선수초등부

체급 \ 순위	1위	2위	3위	
-36kg	최승주(기린초)	-	-	-
-42kg	이규민(북삼초)	김재욱(솔샘초)	-	-
-48kg	김수현(밀성초)	손설환(밀성초)	-	-
-54kg	장준우(솔샘초)	김준호(영광중앙초)	-	-
-60kg	방준호(북삼초)	-	-	-
-66kg	김민재(밀성초)	김제성(밀성초)	-	-
+66kg	박지훈(인천서흥초)	곽현(삼산초)	김준원(기린초)	-

• 개인전 - 여자선수초등부

체급 \ 순위	1위	2위	3위	
-40kg	박하늘(솔샘초)	-	-	-
-44kg	문려원(솔샘초)	-	-	-
+52kg	박하정(인천서흥초)	조채영(밀성초)	-	-

• 개인전 - 남중부

체급 \ 순위	1위	2위	3위	
-48kg	여동건(군포시유도회관)	김선우(안동유도관)	윤인식(한성유도관)	김호용(유도스쿨)
-51kg	차성민(바른자세권성세)	함태영(바른자세권성세)	류지영(안산최강고잔)	최승우(마산무덕관)
-55kg	최지훈(한성유도관)	박민수(SMS멀티짐)	김정원(아산용인대충무)	정지효(수원본중앙)
-60kg	이동호(송탄유도관)	최민우(영통유도체육관)	정승화(경남유도관)	김준연(거송유도관)
-66kg	송관우(마산무덕관)	이시훈(용인대금오)	심준범(산본유도관)	김강현(마산무덕관)
-73kg	최수종(용인대제일)	김찬형(수원본중앙)	김형준(삼척유도관)	신지훈(중앙유도체육관)
-81kg	김현기(유도스쿨)	박태준(대전올림픽유도관)	서승원(선인유도관)	김도현(안산상무유도)
-90kg	유정우(산본유도관)	정의진(최민호JnS)	송정현(하단유심유도관)	지호태(유도스쿨)
+90kg	조민건(한국체대태전)	이진유(안산상무유도)	이현우(하단유심유도관)	길성준(대전올림픽유도관)

• 개인전 - 여중부

체급 \ 순위	1위	2위	3위	
-48kg	김예원(선인유도관)	나예림(송탄유도관)	김승혜(거송유도관)	허하윤(유도스쿨)
-57kg	정예원(해운대유심)	강유진(용인시유도회관)	박지현(M2M스포츠)	손소희(안동유도관)
-70kg	최연수(수원본중앙)	이채린(수원본중앙)	신지우(안산상무유도)	-
+70kg	강은별(대한경의유도관)	공윤진(상무유도관)	허수진(울산한국유도관)	이채영(대한경의유도관)

• 개인전 - 남고부

체급 \ 순위	1위	2위	3위	
-55kg	정영한(용인시유도회관)	정종민(용인대청룡)	김영찬(바른자세권성세)	홍세민(삼척유도관)
-60kg	이수민(선인유도관)	임현빈(용인시유도회관)	조성우(안양유도관)	윤준서(선인유도관)
-66kg	김상현(유사사유도관)	한준호(금호유도관)	문규원(상무유도관)	김동은(인천지방경찰청)
-73kg	지주은(인천지방경찰청)	정지선(시흥시유도회)	변정욱(시흥시유도회)	강경훈(용인시유도회관)
-81kg	소은성(안성유도관)	김득수(선인유도관)	박민준(유사사유도관)	홍승현(선인유도관)
-90kg	이현성(선인유도관)	최형준(김성범유도멸티짐)	김성우(마산무덕관)	장승민(산본유도관)
-100kg	김우석(ACE유도스쿨)	정병연(송탄유도관)	권혁주(대한경의유도관)	이태형(용인대하남유도)
+100kg	안정민(ACE유도스쿨)	임성현(대한유도관)	김선택(전남대유도관)	황수호(SKY유도관)

동트는동해 2018 생활체육유도대회 및 2018초등학교전국유도대회

• 기간 : ? • 장소 : ?

• 개인전 - 여고부

체급 \ 순위	1위	2위	3위	
-48kg	민수민(김재범유도관)	최유경(김성범유도멀티짐)	이연희(관악유도체육관)	김효진(한성유도관)
-52kg	이찬희(송탄유도관)	조은진(파이널멀티짐)	김경희(대한유도관)	정승미(영통유도체육관)
-57kg	김채아(바른자세권성세)	홍연주(하단유심유도관)	이예원(김성범유도멀티짐)	이혜영(용인시유도회관)
-63kg	김은재(영통유도체육관)	남수빈(송탄유도관)	안예지(안산상무유도)	박보람(하단유심유도관)
-70kg	전지나(군포시유도회관)	이하늘(용인시유도회관)	전수진(의정부시유도회)	-
-78kg	김지원(용인시유도회관)	홍주희(하단유심유도관)	임다은(군포시유도회관)	-
+78kg	김수민(시흥시유도회)	곽지예(상무유도관)	이유경(대한경의유도관)	-

• 개인전 - 남대부

체급 \ 순위	1위	2위	3위	
-60kg	김호(정도관)	권용갑(안동시유도회)	김상희(전남대유도관)	-
-66kg	서영민(김성범유도멀티짐)	김승규(금호유도관)	황영준(K&D대현)	-
-73kg	이상빈(선인유도관)	유상현(원광대)	박재현(유사사유도관)	강민석(유사사유도관)
-81kg	주현구(SMS멀티짐)	한승주(고려대)	김진혁(양우유도관)	윤대영(유사사유도관)
+81kg	김영재(유도스쿨)	김환진(하단유심유도관)	문현준(용산용인대유도관)	손석현(안동시유도회)

• 개인전 - 여대부

체급 \ 순위	1위	2위	3위	
-48kg	김정원(연세대)	박은경(청무유심유도관)	권소희(극동대)	-
-52kg	이신혜(극동대)	전영주(극동대)	-	-
-57kg	이새영(서울Y유도체육)	김민주(양산용인대유도)	박효령(양우유도관)	이지형(하단유심유도관)
-63kg	장현주(양우유도관)	정유빈(양우유도관)	-	-
+63kg	김태희(하단유심유도관)	이서영(양우유도관)	조은빛(태백유도관)	사브리나(고려대)

• 개인전 - 여자일반부

체급 \ 순위	1위	2위	3위	
-52kg	강찬미(안산상무유도)	김영미(대한경의유도관)	윤솔아(금호유도관)	천영은(안동시유도회)
+57kg	이지승(유사사유도관)	-	최은영(안산최강고잔)	김현민(의정부시유도회)

• 개인전 - 남청년부

체급 \ 순위	1위	2위	3위	
-73kg	박경석(J&Y유도아카데미)	정용수(관악유도체육관)	김봉철(김재범유도관)	최승호(김재범유도관)
-81kg	박기주(하단유심유도관)	박화원(삼척유도관)	정재빈(유사사유도관)	-
-90kg	장은학(정도관)	-	노익준(용인대호계유도관)	-
+90kg	이민수(거송유도관)	황윤호(정도관)	방진욱(관악유도체육관)	-

• 개인전 - 남청년부

체급 \ 순위	1위	2위	3위	
-73kg	박경석(J&Y유도아카데미)	정용수(관악유도체육관)	김봉철(김재범유도관)	최승호(김재범유도관)
-81kg	박기주(하단유심유도관)	박화원(삼척유도관)	정재빈(유사사유도관)	-
-90kg	장은학(정도관)	-	노익준(용인대호계유도관)	-
+90kg	이민수(거송유도관)	황윤호(정도관)	방진욱(관악유도체육관)	-

• 개인전 - 남중년부

체급 \ 순위	1위	2위	3위	
-73kg	권태희(안동시유도회)	한대원(삼척유도관)	-	-
-81kg	김호(제이원유도관)	박근홍(삼성디스플레이)	-	-
-90kg	이상인(제이원유도관)	정봉진(제이원유도관)	-	-
+90kg	신명관(임장사유도체육관)	-	-	-

• 개인전 - 남장년부

체급 \ 순위	1위	2위	3위	
-73kg	이상윤(양구유도관)	-	태창열(대전올림픽유도관)	-
+73kg	김주하(삼척유도관)	-	한양석(윤용발유도관)	-

• 단체전

구분	1위	2위	3위	
남자선수초등부	인천서흥초	기린초	-	-
남초부(1~2학년)	울산한국유도관	-	-	-
남초부(3~4학년)	해운대유심유도관	청무유심유도관	상무유도관	북삼초
남초부(5~6학년)	청무유심유도관	청무유심유도관	대한경희유도관	마산무덕관
여초부(3~4학년)	북삼초	-	-	-
여초부(5~6학년)	하단유심유도관	-	-	-
남중부	하단유심유도관	송탄유도관	마산무덕관	대전올림픽유도관
남고부	선인유도관	유사사유도관	임장사유도체육관	시흥시유도회
여고부	군포시유도회관	하단유심유도관	송탄유도관	거송유도관
남일반부	SMS멀티짐	SMS멀티짐	안산최강고잔유도관	유도스쿨
남대부/동아리	용인시유도회관	고려대	경희대	유사사유도관
여대부/여일반부	유사사유도관	상무유도관	안동시유도회	거송유도관
체육관	하단유심유도관	선인유도관	유도스쿨	-

• 본 경연대회

구분		순위	잡기	받기	소속
메치기 본	초등부	1위	권윤혁	임강이	내체력동호회
		2위	박휘성	김동윤	목포시유도회관
		3위	손용원	안치원	대한경의유도관
	고등부	1위	지승환	전우진	영통유도관
		2위	이승현	이상윤	영통유도관
		3위	김득수	윤준서	선인유도관
	일반부	1위	김현채	장수덕	파이팅필름유도장
		2위	김희정	윤지효	내체력동호회
		3위	김인숙	채정	내체력동호회
굳히기 본	고등부	1위	이원호	백상엽	명근유도관
		2위	이현성	홍승현	선인유도관
		3위	이수민	김태양	선인유도관
	일반부	1위	최승호	김태현	대한경의유도관
		2위	김옥환	최승민	방배유도체육관
		3위	안상곤	신홍섭	독산유도관
되치기 본	고등부	1위	정호윤	이동주	용인대호계유도관
		2위	장재훈	장태수	대한경의유도관
		3위	한진희	문현빈	송탄유도관
부드러운 본	고등부	1위	감태환	이가연	분당유도관
		2위	이유빈	정승미	영통유도관
		3위	박다인	박다솜	명근유도관
	일반부	1위	지승엽	박경순	방배유도체육관
		2위	윤광수	김영순	고성유도관
		3위	정유경	소명선	내체력동호회
호신의 본	고등부	1위	권혁주	김관영	대한경의유도관
		2위	황채린	이규민	분당유도관
		3위	김영화	박준혁	용인대제일유도관
	일반부	1위	권오욱	이시현	안병근올림픽기념유도관
강도관 본	일반부	1위	서혜경	김중태	방배유도체육관

2018 용인대 총장기 전국 남·여, 중·고등학교 유도대회

• 기간 : 2018년 5월 15일 ~ 5월 18일(4일간) • 강원, 양구문화체육회관

• 개인전 - 남중부

체급 \ 순위	1위	2위	3위	
-45kg	최정빈(도개중)	정보현(부평서중)	진도현(대천리중)	김민기(안락중)
-48kg	하승우(관산중)	차승준(동지중)	송유성(도개중)	박민성(삼성중)
-51kg	두민재(보성중)	전단호(경기체중)	이우진(성남중)	오새결(온양중)
-55kg	박민택(보성중)	김대영(삼성중)	김선우(전북중)	최민수(안락중)
-60kg	양현빈(삼성중)	이경민(하계중)	문준혁(투혼유도클럽)	김대성(전북중)
-66kg	이도협(성남중)	김어진(후평중)	김태완(선린중)	이우혁(관산중)
-73kg	김도건(선린중)	송동현(대천리중)	민재훈(권선중)	김재훈(금곡중)
-81kg	김윤우(전북중)	이충수(대전체중)	장현호(연성중)	한성우(보성중)
-90kg	안정환(금곡중)	이동현(동지중)	이현빈(삼성중)	최규준(안락중)
+91kg	박성근(전북중)	송진희(권선중)	최훈휘(안락중)	박영제(하계중)

• 개인전 - 여중부

체급 \ 순위	1위	2위	3위	
-45kg	유예슬(북원여중)	배진희(광명북중)	진해빈(광문중)	-
-48kg	김소현(철원여중)	박미진(해동중)	오수아(해동중)	김성은(청라중)
-52kg	추경은(북원여중)	지가현(관산중)	김한별(동지여중)	윤가람(동지여중)
-57kg	한서영(청라중)	조보민(북원여중)	박기수(해동중)	진솔비(광문중)
-63kg	김민예(동지여중)	조현숙(북원여중)	고은아(경기체중)	추홍선(철원여중)
-70kg	안현진(철원여중)	문채은(달성중)	박윤정(하계중)	-
+70kg	김지영(관산중)	박지연(철원여중)	오지희(전북중)	이민서(금곡중)

• 개인전 - 남고부

체급 \ 순위	1위	2위	3위	
-60kg	김명진(성남고)	김용환(보성고)	함우식(주문진고)	심재민(경기체고)
-66kg	김태모(경민고)	홍종현(남녕고)	임교빈(충북체고)	안재홍(경민고)
-73kg	이은결(보성고)	김건중(성남고)	최민서(원광고)	김도현(울산생과고)
-81kg	오가와성시(비봉고)	이남훈(주산산업고)	이경호(동지고)	이규인(진량고)
-90kg	정인성(삼천포중앙고)	박지훈(대성고)	정두(보성고)	이한성(금곡고)
-100kg	함정재(동지고)	이영재(금호공업고)	김영빈(용문고)	서익준(덕원고)
+100kg	김민종(보성고)	송우혁(우석고)	박서진(서울체고)	박견우(서울체고)

• 개인전 - 여고부

체급 \ 순위	1위	2위	3위	
-48kg	이혜인(철원여고)	홍채림(동지여고)	한수경(울산생과고)	김은총(경민IT고)
-52kg	장가은(영서고)	안채연(충남체고)	구소정(경민IT고)	이도현(경민IT고)
-57kg	허슬미(경민IT고)	강민정(삼정고)	김현지(울산생과고)	신주영(동지여고)
-63kg	채정아(서울체고)	고은별(남녕고)	정승아(경기체고)	김유빈(충북체고)
-70kg	김민경(울산생과고)	최엄지(주문진고)	최지원(도개고)	정혜민(서울체고)
-78kg	최수연(금곡고)	김나영(창녕대성고)	이윤선(경기체고)	김주운(충남체고)
+78kg	조은나라(경민IT고)	장유경(진량고)	강윤지(남녕고)	최민지(주문진고)

• 단체전

구분	우승	준우승	3위	
남중부	전북중	보성중	선린중	금곡중
여중부	철원여중	동지여중	경기체중	-
남고부	보성고	경민고	원광고	동지고
여고부	경기체고	인천체고	경민IT고	부산체고

※ 지도자상 : 남중부 - 정아현(전북중) / 여중부 - 최수진(철원여중) /
남고부 - 이상은(보성고) / 여고부 - 김민수(경기체고)
모범심판상(1명) : 한종수(야음중)

• 본 경연대회

구분	금상	은상	동상
메치기 본	선인유도관 김득수(잡기) / 윤준서(받기)	영통유도관 이송현(잡기) / 이상윤(받기)	용인대정진유도관 신민재(잡기) / 이지현(받기)
굳히기 본	선인유도관 이현성(잡기) / 홍승현(받기)	영통유도관 지승환(잡기) / 조용민(받기)	영통유도관 남성연(잡기) / 강희창(받기)
부드러운 본	분당유도관 김태환(잡기) / 홍성민(받기)	영통유도관 이유빈(잡기) / 정승미(받기)	명근유도관 박다인(잡기) / 박다솜(받기)
되치기 본	영통유도관 이강준(잡기) / 이승준(받기)	용인대호계유도관 정호윤(잡기) / 이동주(받기)	대한경의유도관 장태수(잡기) / 장재훈(받기)
호신의 본	분당유도관 임재현(잡기) / 이규민(받기)	선인유도관 박준범(잡기) / 조현석(받기)	대한경의유도관 권혁주(잡기) / 김관영(받기)

제89회 YMCA 전국유도대회

• 기간 : 2018년 4월 30일 ~ 5월 2일(3일간) • 장소 : 경북, 김천실내체육관

• 개인전 - 남고부

체급 \ 순위	1위	2위	3위	
-60kg	김명진(성남고)	전제용(원광고)	김정우(경민고)	김용환(보성고)
-66kg	이종호(경민고)	김태모(경민고)	박찬우(도개고)	안재홍(경민고)
-73kg	이준환(경민고)	조윤섭(덕원고)	김건중(성남고)	김신종(경민고)
-81kg	임성(금곡고)	이윤상(광주체고)	이남훈(주산산업고)	이규인(진량고)
-90kg	정다빈(금호공고)	이승현(우석고)	김재민(울산스과고)	서현영(비봉고)
-100kg	함정재(동지고)	권오찬(김천중앙고)	김준규(계성고)	김현준(충남체고)
+100kg	배세진(비봉고)	송우혁(우석고)	박견우(서울체고)	김상경(동지고)

• 개인전 - 여고부

체급 \ 순위	1위	2위	3위	
-48kg	김지연(충북체고)	허송림(서울체고)	홍채림(동지여고)	문하을(인천체고)
-52kg	장가은(영서고)	구소정(경민IT고)	전수진(충북체고)	이설빈(도개고)
-57kg	김주희(충북체고)	김한슬(서울체고)	권수정(인천체고)	김다은(충남체고)
63kg	정승아(경기체고)	제지우(광영여고)	정이주(경민IT고)	채정아(서울체고)
-70kg	유현지(울산생과고)	최엄지(주문진고)	이아현(경민IT고)	김민경(울산생과고)
-78kg	김유진(영선고)	이윤선(경기체고)	최정원(광영여고)	차지원(인천체고)
+78kg	박샛별(대구체고)	장유경(진량고)	조은나(경민IT고)	김다혜(여수정과고)

• 단체전

구분	1위	2위	3위	
남고부	경민고(경기)	보성고(서울)	충남체고(충남)	금호공고(경북)
여고부	경기체고(경기)	광영여고(서울)	철원여고(강원)	울산생과고(울산)

※ 최우수선수상(2명) : 남자부 - 배세진(비봉고) / 여자부 - 유현지(울산생과고)
모범심판상(1명) : 임병기(남녕고)
장려상 : 남자부 - 도개고(경북) / 여자부 - 동지여고(경북)

제46회 춘계전국초중고등학교유도연맹전 겸 2018 세계 및 아시아유소년유도선수권대회 파견 선발대회

• 기간 : 2018년 3월 29일 ~ 4월 3일(6일간) • 장소 : 양구문화체육회관

• 개인전 - 남초부

체급 \ 순위	1위	2위	3위	
-36kg	임강현(부안초)	안장혁(서울송중초)	한결(부안초)	이준현(원일초)
-42kg	이규민(북삼초)	이재현(양학초)	윤효원(인천신현북초)	김은수(다문초)
-48kg	홍지민(보산초)	정지성(양학초)	박규도(부안초)	백동균(인천서흥초)
-54kg	김태웅(서울송중초)	정희찬(청계초)	정상호(장양초)	이기민(다문초)
-60kg	나석원(인천서흥초)	윤태성(간성초)	임지원(다문초)	김민준(인천서흥초)
-66kg	박승겸(계룡초)	강민성(청계초)	김건택(옥천초)	-
+66kg	박지훈(인천서흥초)	백종우(덕계초)	김다원(간성초)	-

• 개인전 - 여초부

체급 \ 순위	1위	2위	3위	
-36kg	이유진(석수초)	주수림(청계초)	방민지(복삼초)	유슬기(장양초)
-42kg	정수아(서울송중초)	손채영(다문초)	서민지(부안초)	-
-48kg	김연서(석수초)	-	-	-
-57kg	김민선(양학초)	-	-	-
+57kg	김현진(인천신현북초)	-	-	-

• 개인전 - 남중부

체급 \ 순위	1위	2위	3위	
-45kg	김성진(마산중)	최영민(전북중)	최정빈(도개중)	이중혁(도개중)
-48kg	하승우(관산중)	이현승(태장중)	차승준(동지중)	이태호(대전대성중)
-51kg	김진(신철원중)	신찬민(원광중)	두민재(보성중)	박민섭(대전대성중)
-55kg	김진혁(경민중)	윤현수(덕현중)	김대영(삼성중)	박민택(보성중)
-60kg	진선영(보성중)	우민(성남중)	김지완(안락중)	김대성(전북중)
-66kg	이도협(성남중)	김선우(안락중)	우정명(야음중)	윤태양(신현중)
-73kg	김대현(덕원중)	이재명(보성중)	손시현(덕현중)	손승민(비봉중)
-81kg	김윤우(전북중)	한성우(보성중)	차민혁(송도중)	공민석(신철원중)
-90kg	이동현(동지중)	이지원(경기체중)	이경훈(비봉중)	박승민(창녕성산중)
+90kg	김주형(부평서중)	장민혁(관산중)	임동평(동지중)	김민성(관산중)

• 개인전 - 여중부

체급 \ 순위	1위	2위	3위	
-42kg	김성경(종암중)	이혜원(영선중)	권나라(동명중)	윤우미(신현여중)
-45kg	정수진(입석중)	신유지(영선중)	이소정(도개중)	진해빈(광문중)
-48kg	김근영(영선중)	박하연(영선중)	김다솔(동명중)	황연진(울산스과중)
-52kg	정나리(안락중)	양지현(도개중)	박온유(광주체중)	윤가람(동지여중)
-57kg	박나연(남해여중)	차아리(영선중)	김지혜(종암중)	홍수진(경기체중)
-63kg	김지예(입석중)	양석희(안락중)	한수현(울산스과중)	김민예(동지여중)
-70kg	김민주(덕현중)	정유라(야음중)	김민주(영선중)	박윤정(하계중)
+70kg	김지영(관산중)	김다윤(물금동아중)	이임경(덕천여중)	이민서(금곡중)

• 개인전 - 남고부

체급 \ 순위	1위	2위	3위	
-55kg	이성민(도개고)	김태윤(보성고)	김승현(보성고)	안수현(청석고)
-60kg	하정우(경민고)	김정우(경민고)	전민(경신고)	최낙일(우석고)
-66kg	이종호(경민고)	김태모(경민고)	박준식(덕원고)	오선교(명석고)
-73kg	권기윤(도개고)	이준환(경민고)	김도현(울산생과고)	장유빈(신철원고)
-81kg	이남훈(주산산업고)	이윤상(광주체고)	이규인(진량고)	김영승(보성고)
-90kg	홍승연(주문진고)	정다빈(금호공고)	김종규(충남체고)	전영빈(명석고)
-100kg	함정재(동지고)	김영빈(용문고)	박동욱(삼천포중앙고)	서익준(덕원고)
+100kg	김민종(보성고)	배세진(비봉고)	박견우(서울체고)	이승수(충남체고)
무제한	김민종(보성고)	이남훈(주산산업고)	최원호(해동고)	배세진(비봉고)

• 개인전 - 여고부

체급 \ 순위	1위	2위	3위	
-45kg	한수경(울산생과고)	황예진(광영여고)	홍보현(주산산업고)	좌시안(함덕고)
-48kg	허송림(서울체고)	김보민(경기체고)	라희원(영선고)	김은총(경민IT고)
-52kg	전수진(충북체고)	구소정(경민IT고)	황수련(영선고)	이도현(경민IT고)
-57kg	허슬미(경민IT고)	김한슬(서울체고)	배경은(경기체고)	김가연(영선고)
-63kg	신채원(대구체고)	김예림(도개고)	고은별(남녕고)	전솔빈(전북여고)
-70kg	김민경(울산생과고)	유현지(울산생과고)	김유빈(인천체고)	최지원(도개고)
-78kg	김주윤(울산생과고)	김민주(광주체고)	김유진(영선고)	이윤선(경기체고)
+78kg	박샛별(대구체고)	조은나라(경민IT고)	최홍영(경민IT고)	간다향(광영여고)
무제한	박샛별(대구체고)	조은나라(경민IT고)	김유진(영선고)	김유빈(인천체고)

• 단체전

구분	1위	2위	3위	
남초부	간성초	부안초	인천신현북초	인천서흥초
여초부	정양초	-	-	-
남중부	보성중	안락중	전북중	신현중
여중부	울산스포츠과학중	종암중	-	덕천여중
남고부	보성고	경민고	금호공고	우석고
여고부	경민IT고	경기체고	광영여고	울산생과고

2018 전국실업유도최강전

• 기간 : 2018년 4월 4일 ~ 4월 6일(3일간) • 장소 : 강원 양구문화체육회관

• 개인전 - 남일반부

체급 \ 순위	1위	2위	3위	
-60kg	장진민(코레일)	홍성인(광주광역시체육회)	곽기철(양평군청)	-
-66kg	최인혁(대구광역시청)	서진환(경남도청)	황태원(용인시청)	황동규(부산광역시청)
-73kg	엄현준(독도스포츠단)	이진성(여수시청)	이정민(독도스포츠단)	김림환(한국마사회)
-81kg	이희중(한국마사회)	송민기(경남도청)	서동규(제주특별자치도청)	임주용(남양주시청)
-90kg	정원준(한국마사회)	전찬(국군체육부대)	홍석웅(용인시청)	한경진(국군체육부대)
-100kg	김재윤(한국마사회)	강대봉(경남도청)	김찬호(용인시청)	김경모(국군체육부대)
+100kg	주태양(국군체육부대)	최민영(코레일)	황민호(경찰체육단)	김이현(코레일)

• 개인전 - 여일반부

체급 \ 순위	1위	2위	3위	
-48kg	이혜경(광주도시철도공사)	장지영(제주특별자치도청)	오영지(충북도청)	이세영(인천시청)
-52kg	남지영(안산시청)	조아라(고창군청)	장예진(동해시청)	하주희(고창군청)
-57kg	권유정(안산시청)	서수빈(고창군청)	김혜빈(경남도청)	권애림(동해시청)
63kg	지윤서(동해시청)	박지윤(경남도청)	김슬기(동해시청)	최은솔(인천시청)
-70kg	정혜진(안산시청)	김성연(광주도시철도공사)	이지수(동해시청)	유지영(경남도청)
-78kg	윤현지(안산시청)	박유진(동해시청)	황예슬(제주특별자치도청)	최종옥(대구광역시청)
+78kg	김지윤(동해시청)	한미진(충북도청)	이정은(인천시청)	이은주(제주특별자치도청)

• 단체전

구분	1위	2위	3위	
남자부	한국마사회	용인시청	부산시청	포항시청
여자부	동해시청	안산시청	충북도청	포항시청

※ 모범심판상 : 대한유도회(상임심판) 김은희

2018 춘계 전국남·여대학유도연맹전 결과

• 기간 : 2018년 4월 11일 ~ 4월 13일(3일간) • 장소 : 순창실내체육관관

• 개인전 - 남대부

체급 \ 순위	1위	2위	3위	
-60kg	김찬녕(용인대)	진재호(용인대)	임은준(경기대)	박선주(동의대)
-66kg	신호(용인대)	김지훈(용인대)	홍문호(경기대)	정용욱(한국체대)
-73kg	김휘건(한국체대)	안재식(한국체대)	박희원(선문대)	고재경(용인대)
-81kg	김민규(동의대)	이준성(한국체대)	김윤호(영남대)	이위진(용인대)
-90kg	한주엽(용인대)	김유철(용인대)	이유한(용인대)	김한수(경기대)
-100kg	박영찬(용인대)	양창일(세한대)	심재우(용인대)	신병재(선문대)
+100kg	윤재구(한국체대)	양성민(용인대)	김두용(용인대)	박재성(계명대)

• 개인전 - 여대부

체급 \ 순위	1위	2위	3위	
-48kg	박은이(한국체대)	황채림(대구과학대)	박서연(경기대)	오연주(한국체대)
-52kg	장윤진(한국체대)	송나영(용인대)	추희선(용인대)	이근혜(용인대)
-57kg	김재령(한국체대)	정예린(용인대)	이재란(용인대)	김예나(마산대)
63kg	이주연(한국체대)	장한빛(용인대)	김나영(한국체대)	박다운(한국체대)
-70kg	이예원(한국체대)	류예담(한국체대)	윤주희(용인대)	김성은(한국체대)
-78kg	이정윤(용인대)	홍진주(한국체대)	문다슬(한국체대)	최은현(용인대)
+78kg	김하윤(한국체대)	배혜빈(용인대)	김태연(경기대)	김예솔(용인대)

• 단체전

구분	1위	2위	3위	
남대부	한국체대	영남대	동의대	인하대
여대부	한국체대	대구과학대	마산대	경기대

※ 심판상 : 강장원(여수시청)
지도자상 : 홍승한(한국체대) / 서하나(한국체대)
최우수선수상 : 남자부 - 김재현(한국체대) / 여자부 - 김하윤(한국체대)

제47회 전국소년체육대회 경기결과

• 기간 : 2018년 5월 26일 ~ 5월 27일(2일간) • 장소 : 충북, 청주유도회관

• 남중부

체급 \ 순위	1위	2위	3위	
-55kg	김찬욱(경북)	김진혁(경기)	박민택(서울)	김민규(경남)
-60kg	진선영(서울)	조성호(경북)	강경묵(강원)	구동준(경남)
-66kg	이도협(서울)	우정명(울산)	장승준(전북)	박현빈(제주)
-73kg	김대현(대구)	박준현(서울)	김효준(충남)	박경문(경기)
-81kg	이충수(대전)	김문수(서울)	유준(경북)	이철승(울산)
-90kg	김형석(전북)	박승민(경남)	이상준(대전)	함석진(강원)
+90kg	김주형(인천)	백두산(울산)	박성근(전북)	김준(광주)

※ 최우수선수 : 이충수(대전)

• 여중부

체급 \ 순위	1위	2위	3위	
-45kg	배유진(충북)	박경혜(강원)	최서영(전남)	김성경(서울)
-48kg	김민정(제주)	김예지(경북)	김남주(경기)	김성은(충남)
-52kg	정나리(부산)	이본(제주)	이예랑(경남)	신지현(대구)
-57kg	차아리(전북)	박나연(경남)	배희진(충북)	김보경(전남)
-63kg	김민예(경북)	김지예(대구)	양지민(경남)	김수연(전남)
-70kg	김민주(경기)	정유리(울산)	박윤정(서울)	안현진(강원)
+70kg	이혜빈(경기)	김다윤(경남)	최혜빈(강원)	오지희(전북)

※ 최우수선수 : 김민예(경북)

• 남초부

체급 \ 순위	1위	2위	3위	
-35kg	이은강(서울)	임강현(강원)	이준호(대구)	유주승(인천)
-43kg	김용민(경기)	이규민(강원)	고상현(충남)	이재현(경북)
-53kg	안현우(경남)	송영현(강원)	임형준(서울)	박호수(충남)
-65kg	김민준(강원)	박승겸(경남)	손혁준(울산)	문현석(인천)
+65kg	박지훈(인천)	강룡구(강원)	백종우(경기)	최성원(대구)

※ 최우수선수 : 김용민(경기)

• 여초부

체급 \ 순위	1위	2위	3위	
-36kg	신유미(제주)	정수아(서울)	유슬기(강원)	조은비(전북)
-48kg	강나은(강원)	조한슬(인천)	이소애(경북)	강은비(경남)
-57kg	석지향(경기)	정혜영(강원)	송다영(경북)	김지나(경남)
+57kg	이현지(제주)	한예주(강원)	김여주(부산)	고은비(경북)

※ 최우수선수 : 이현지(제주)

2018년도 제1차 정기승단자명단(2018년 2월 28일)

9단

137 정경락
138 박팔용

8단

10438 윤장곤
10439 이성수
10440 노승찬
10441 강대진

7단

11934 배낙호

6단

13060 유수현

5단

14978 천하림
14979 윤제성
14980 이재현
14981 고종한
14982 고용희
14983 강호석
14984 최성민
14985 이지예
14986 최성호

4단

25344 김미경
25345 김성빈
25346 안영찬
25347 권재규
25348 윤홍의
25349 서장수
25350 신상민
25351 강명수
25352 이은욱
25353 이이
25354 최준환
25355 박태건
25356 강태형
25357 김기슬
25358 김병현
25359 박경석
25360 양석범
25361 안성욱
25362 박세준
25363 강다솜
25364 강민석
25365 강호준
25366 고윤정
25367 고민혁
25368 공서영
25369 김규연
25370 김다솔
25371 김문수
25372 김미래
25373 김보름
25374 김성용
25375 김승연
25376 김영재
25377 김찬우
25378 김태호
25379 김현재
25380 김현진
25381 김현표
25382 노승혁
25383 도한솔
25384 문규준
25385 문상영
25386 박다솔
25387 박다운
25388 박명준
25389 박현익
25390 배원희
25391 서경필
25392 송윤기
25393 신해인
25394 심용욱
25395 심혜연
25396 양인수
25397 양지수
25398 엄승현
25399 엄익선
25400 오영지
25401 오충원
25402 원종호
25403 원준철
25404 유대영
25405 유진현
25406 윤경민
25407 이계인
25408 이기형
25409 이동현
25410 이동현
25411 이문진
25412 이미경
25413 이상훈
25414 이세환
25415 이용식
25416 이웅찬
25417 이윤태
25418 이창훈
25419 이헌용
25420 이소윤
25421 이호진
25422 임대성
25423 장순민
25424 장예진
25425 장우영
25426 장정혜
25427 정승현
25428 정윤아
25429 정현호
25430 주영서
25431 최종환
25432 하신홍
25433 하창윤
25434 한미진
25435 현승주
25436 황지운

3단

41136 배선영
41137 신별
41138 이정화
41139 신은혜
41140 백승훈
41141 정재형
41142 김왕식
41143 김대덕
41144 은동문
41145 신헌철
41146 서상훈
41147 문창균
41148 류근
41149 권용덕
41150 장근보
41151 박만수
41152 박은이
41153 김대원
41154 최성진
41155 김순기
41156 서상영
41157 심승범
41158 김진수
41159 전태환
41160 박상현
41161 김동민
41162 원성욱
41163 이운현
41164 임효재
41165 김성록
41166 김미수
41167 김성진
41168 박재승
41169 김대현
41170 고명완
41171 김병학
41172 강하린
41173 이성현
41174 장준우
41175 김성주
41176 이준영
41177 안호진
41178 서태석
41179 권기태
41180 박성우
41181 이경근
41182 김현수
41183 이현준
41184 안강민
41185 김지원
41186 신재형
41187 지호찬
41188 노병완
41189 소두생
41190 한경묵
41191 박상원
41192 김동언
41193 최영한
41194 정의광
41195 임준환
41196 박병민
41197 남현승
41198 김재익
41199 이창환
41200 공정희
41201 이동헌
41202 박준호
41203 손근용
41204 권기범
41205 이채은
41206 김미리
41207 차재룡
41208 김경훈
41209 김준근
41210 정혜윤
41211 김동의
41212 김기영
41213 임문혁
41214 박근

2단

131292 이현찬
131293 최호연
131294 송호준
131295 성효진
131296 이찬영
131297 권순재
131298 최동하
131299 백종우
131300 김신웅
131301 장원준
131302 박민
131303 정다원
131304 김병훈
131305 김동선
131306 백승진
131307 곽지민
131308 유용혁
131309 진아미
131310 한주병
131311 이주용
131312 구대영
131313 이정인
131314 이두현
131315 김승헌
131316 박세훈
131317 이신열
131318 박찬웅
131319 조영일
131320 이현상
131321 허재혁
131322 염윤균
131323 박정현
131324 장호영
131325 송승화
131326 이민영
131327 국민희
131328 김용철
131329 엄정용
131330 이명철
131331 김주안
131332 이준엽
131333 박세린
131334 손진영
131335 노건우
131336 정의경
131337 김지수
131338 김신이
131339 박성근
131340 전지석
131341 부성현
131342 조은샘
131343 황인호
131344 최철홍
131345 임새롬
131346 김완후
131347 김나윤
131348 김진수
131349 김영찬
131350 김도윤
131351 김동혁
131352 문성현
131353 정현석
131354 정소영
131355 박종율
131356 김지영

2018년도 제1차 정기승단자명단(2018년 2월 28일)

131357 제지우
131358 안주연
131359 박충민
131360 정은희
131361 모준석
131362 김재우
131363 이찬영
131364 임윤성
131365 김인욱
131366 이재용
131367 이병연
131368 심영보
131369 김영승
131370 방하민
131371 박중현
131372 백재민
131373 백수현
131374 임혜은
131375 장세영
131376 고승현
131377 조용훈
131378 강신웅
131379 이요한
131380 박현호
131381 윤성진
131382 장영석
131383 이동욱
131384 김동한
131385 허훈
131386 이장재
131387 송진우
131388 안현진
131389 황찬희
131390 이해준
131391 임동관
131392 오유진
131393 권수연
131394 고경
131395 한혜인
131396 진승오
131397 김형택
131398 장희비
131399 이경금
131400 김유근
131401 정예은
131402 김지윤

131403 정영규
131404 윤상도
131405 서호준
131406 유비
131407 이주하
131408 조상철
131409 서혁진
131410 김미선
131411 오철언
131412 김정민
131413 전성현
131414 김민수
131415 김지수
131416 이동호
131417 조재민
131418 김지훈
131419 박경민
131420 박창석
131421 조용진
131422 조세영
131423 박세원
131424 문준호
131425 김원주
131426 장세희
131427 정우진
131428 정장현
131429 유석원
131430 한다슬
131431 김영권
131432 김병구
131433 이승훈
131434 임재현
131435 김주태
131436 송명관
131437 김재연
131438 김호연
131439 우재현
131440 이정환
131441 송세영
131442 오학균
131443 이진상
131444 홍덕표
131445 조지훈
131446 권혁수
131447 윤여범
131448 정성미

131449 김봉준
131450 신효재
131451 권선우
131452 박재성
131453 박용선
131454 윤민서
131455 정범식
131456 김해준
131457 강명철
131458 강준혁
131459 윤진하
131460 이상협
131461 김지호
131462 양용열
131463 김봉겸
131464 김영관
131465 홍원기
131466 양진광
131467 김강모
131468 김강현
131469 민승기
131470 권용빈
131471 이현종
131472 신재웅
131473 양해준
131474 조우진
131475 김도연
131476 전병현
131477 신재우
131478 오유진
131479 박보람
131480 김형민
131481 이진수
131482 이수지
131483 김수현
131484 김보형
131485 성겸
131486 김상훈
131487 이경선
131488 정은파
131489 정찬주
131490 김유나
131491 김주원
131492 이상아
131493 장영주
131494 하지훈

131495 이청아
131496 이영화
131497 여상출
131498 엄세용
131499 유동현
131500 김선권
131501 박주훈
131502 강두석
131503 허준우
131504 최재형
131505 장유진
131506 김정기
131507 이종욱
131508 이시우
131509 선미영
131510 최수종
131511 조재영
131512 김영화
131513 이명진
131514 조희원
131515 장영철
131516 윤예진
131517 변성현
131518 최성민
131519 조하연
131520 홍다은
131521 조유현
131522 유지희
131523 박태민
131524 황윤주
131525 김광민
131526 이동하
131527 이창우
131528 양민영
131529 현유란
131530 정호영
131531 박경호
131532 송우엽
131533 문가은
131534 안태규
131535 김건우
131536 허남환
131537 이동효
131538 최병훈
131539 정서해
131540 허정원

131541 한채민
131542 황도현
131543 진세원
131544 유희승
131545 서인석
131546 정윤찬
131547 김승준
131548 조현주
131549 김석훈
131550 한지원
131551 박현성
131552 류지훈
131553 방대원
131554 조남욱
131555 신동훈
131556 김건민
131557 전성동
131558 김효빈
131559 윤태훈
131560 강태동
131561 문대상
131562 김상훈
131563 박효준
131564 김진형
131565 김동진
131566 박채연
131567 남현진
131568 이혜민
131569 김범수
131570 이수범
131571 박완슬
131572 전지혜
131573 이채원
131574 김종표
131575 이재윤
131576 이상돈
131577 신종한
131578 홍유진
131579 홍예지
131580 허석진
131581 이정민
131582 조범주
131583 심우진
131584 이동국
131585 윤유진
131586 한치형

131587 김태년
131588 변성준
131589 류근호
131590 윤정현
131591 손경용
131592 김재균
131593 신동인
131594 한수진
131595 이동현
131596 전경춘
131597 윤용재
131598 한대현
131599 권혁동
131600 강성규
131601 최원진
131602 김정훈
131603 김민성
131604 문유나
131605 민규태
131606 유건우
131607 최명수
131608 강하늘
131609 전일봉
131610 김승연
131611 박민재
131612 박영채
131613 오대한
131614 정동권
131615 김지연
131616 최수현
131617 나은지
131618 이지향
131619 전지선
131620 김혜지
131621 박철현
131622 김명준
131623 한장선
131624 박정현
131625 김인철
131626 김지회
131627 조민기
131628 박지원
131629 박진우
131630 손향숙
131631 김우현
131632 정석모

2018년도 제1차 정기승단자명단(2018년 2월 28일)

131633 오유미
131634 박동진
131635 한승헌
131636 최현우
131637 금종호
131638 김가영
131639 윤주혁
131640 현도경
131641 서재호
131642 김형균
131643 이진호
131644 김기민
131645 이동욱
131646 김두진
131647 유은지
131648 황용하
131649 김소영
131650 신현영
131651 조은비
131652 이리안
131653 김주현
131654 배재훈
131655 강나영
131656 이태형
131657 김재선
131658 임규순
131659 전지나
131660 박정인
131661 임다은
131662 김다빈
131663 안예지
131664 이영주
131665 이재유
131666 이임선
131667 유은지
131668 신영웅
131669 김정현
131670 송건
131671 최현우
131672 장준우
131673 박광현
131674 원광건
131675 정의연
131676 김혜경
131677 이교우
131678 김민철

131679 최종엽
131680 문경석
131681 최황운
131682 정현재
131683 박민정
131684 유병국
131685 배유정
131686 이수연
131687 정민석
131688 정회련
131689 최연희
131690 최은솔
131691 문정원
131692 김재원
131693 이지송
131694 이지환
131695 함길노
131696 조연상
131697 김득수
131698 임소범
131699 김동한
131700 이장엽
131701 최병렬
131702 성재협
131703 이승현
131704 장덕희
131705 정장교
131706 김민수
131707 고운
131708 정형석
131709 김태상
131710 이병준
131711 김대현
131712 남궁종윤
131713 김기훈
131714 박진우
131715 백승용
131716 최민혁
131717 유준영
131718 정준배
131719 구도현
131720 한지현
131721 하연수
131722 김서영
131723 김광우
131724 손기백

131725 박진범
131726 박은정
131727 박소정
131728 이유혁
131729 양준서
131730 나일환
131731 문서희
131732 최흥락
131733 강도훈
131734 김세진
131735 김영규
131736 김예나
131737 유재호
131738 이종호
131739 전진
131740 우준우
131741 김용원
131742 최양설
131743 장희준
131744 김수민
131745 홍순범
131746 허준서
131747 최형준
131748 고수성
131749 김병준
131750 이태곤
131751 김담덕
131752 박태경
131753 진영희
131754 이현숙
131755 이현남
131756 박준태
131757 김지영
131758 이선빈
131759 김병규
131760 변민서
131761 김민경
131762 서우경
131763 홍원기
131764 길상배
131765 한규태
131766 서지현
131767 정용훈
131768 김필성
131769 김필재
131770 정위수

131771 김효형
131772 김보성
131773 양상현
131774 정종민
131775 이현종
131776 김명준
131777 김찬호
131778 김도연
131779 김재현
131780 김재모
131781 문민이
131782 김다정
131783 김준태
131784 김보빈
131785 이민경
131786 김보민
131787 김혁준
131788 김태호
131789 김진휘
131790 김영진
131791 정해민
131792 이장환
131793 최준혁
131794 박재성
131795 이종혁
131796 신종원
131797 김윤성
131798 강한빛
131799 고신영
131800 곽진솔
131801 모찬혁
131802 박수현
131803 박주현
131804 손설희
131805 손수진
131806 양희주
131807 오윤아
131808 유기찬
131809 이석호
131810 조예담
131811 하유림
131812 김동호
131813 김세현
131814 정해리
131815 김소연
131816 강승엽

131817 윤현기
131818 정연찬
131819 김어진
131820 유승완
131821 정유빈
131822 김민수
131823 김태은
131824 이찬용
131825 허예린
131826 임나래
131827 조민
131828 윤동규
131829 원은정
131830 김석진
131831 이태환
131832 이지석
131833 최강미
131834 김민지
131835 박수빈
131836 이선영
131837 손윤정
131838 김동현
131839 배주희
131840 양지수
131841 임가인
131842 박상욱
131843 황현정
131844 이근영
131845 김유림
131846 복진헌
131847 신기록
131848 양승조
131849 권오철
131850 손은규
131851 권혁준
131852 이석호
131853 이건희
131854 차영일
131855 김도희
131856 이치연
131857 최원석
131858 이준호
131859 손나래
131860 양준혁
131861 남광섭
131862 김휘모

131863 김성진
131864 김선기
131865 지현민
131866 권승언
131867 전주현
131868 임유정
131869 이유진
131870 신은지
131871 정준화
131872 이성민
131873 최한영
131874 윤나영
131875 조희근
131876 곽윤원
131877 노영석
131878 박진수
131879 김창목
131880 김희성
131881 박성현
131882 김태윤
131883 최유지
131884 진주찬
131885 배성훈
131886 임민서
131887 서원희
131888 정국배
131889 모경훈
131890 주다훈
131891 김태홍
131892 장우석
131893 박우경
131894 정성환
131895 김민재
131896 이혜리
131897 박상진
131898 김수빈
131899 곽수민
131900 하상혁
131901 신준상
131902 장윤경
131903 정시윤
131904 박정혁
131905 박가은
131906 이재영
131907 김문섭
131908 황보운

2018년도 제1차 정기승단자명단(2018년 2월 28일)

131909 문병윤
131910 손하현
131911 전지혜
131912 이한희
131913 최윤아
131914 이지성
131915 이정은
131916 고은현
131917 송연수
131918 나인혜
131919 김가연
131920 김현지
131921 조완
131922 최윤선
131923 곽율
131924 안종현
131925 신의혁
131926 김지호
131927 김형석
131928 손지민
131929 오건기
131930 유현수
131931 윤금재
131932 최성욱
131933 이지택
131934 김민석
131935 김성은
131936 정소연
131937 백기주
131938 유재현
131939 안성범
131940 박근영
131941 문재원
131942 박승재
131943 박태연
131944 오지원
131945 배성민
131946 박지성
131947 한지훈
131948 문진혁
131949 서기원
131950 강성민
131951 오다운
131952 소주현
131953 방경륜
131954 서하늘
131955 박재우
131956 최성빈
131957 허덕구
131958 박병도
131959 문경준
131960 이승환
131961 설재훈
131962 성민호
131963 구홍회
131964 이종훈
131965 최재혁
131966 범가브리엘
131967 위두성
131968 김주엽
131969 이아연
131970 강래경
131971 박창민
131972 정창현
131973 배지흥
131974 이재영
131975 임경호
131976 손영석
131977 박종윤
131978 강정우
131979 최민
131980 이권호
131981 최민규
131982 김홍일
131983 정범석
131984 김진수
131985 한송희
131986 이효정
131987 양서현
131988 박예림
131989 서지수
131990 안채빈
131991 김연진
131992 반주윤
131993 김치섭
131994 현승민
131995 우정민
131996 백지민
131997 허정웅
131998 박희진
131999 권규현
132000 김성우
132001 배동주
132002 금경훈
132003 정진우
132004 강승희
132005 강은서
132006 이현정
132007 임현진
132008 엄원주
132009 이동권
132010 홍아름
132011 김동환
132012 김광원
132013 이혁재
132014 황윤건
132015 황명석
132016 전진우
132017 김태환
132018 김동성
132019 박동환
132020 박수찬
132021 김민지
132022 허나영
132023 이민령
132024 진혜린
132025 황혜림
132026 이설영
132027 최혜정
132028 조희주
132029 이재권
132030 박혜윤
132031 김혁진
132032 김유경
132033 전민송
132034 구나영
132035 이화령
132036 박준형
132037 정한별
132038 김혜리
132039 이빛나
132040 장유경
132041 김태원
132042 박주희
132043 차성엽
132044 이재규
132045 유일근
132046 조성준
132047 이준희
132048 황송이
132049 이남경
132050 권세은
132051 곽예주
132052 김정연
132053 정혜윤
132054 정지원
132055 김호진
132056 허정민
132057 안수정
132058 안다영
132059 김가희
132060 우수민
132061 장준하
132062 신승민
132063 박종범
132064 김찬일
132065 최동인
132066 서석현
132067 박정현
132068 이재우
132069 윤예섬
132070 김윤지
132071 신민경
132072 김진형
132073 윤선정
132074 윤가영
132075 이미라
132076 정우준
132077 배인선
132078 조아영
132079 고민아
132080 김인택
132081 김도윤
132082 김상현
132083 안규리
132084 이보윤
132085 송병준
132086 박시현
132087 임석영
132088 박재연
132089 박지홍

소년2단

5191 탁희준
5192 박연호
5193 백선우
5194 한준서
5195 정승호
5196 김윤찬
5197 김선우
5198 김시현
5199 이유빈
5200 정다겸
5201 유현준
5202 백승기
5203 양지한
5204 김류호
5205 최우진
5206 김성경
5207 서정원
5208 신은규
5209 서의찬
5210 이세민
5211 박민성
5212 박준석
5213 임희채
5214 정도건
5215 이민영
5216 윤덕영
5217 이금찬
5218 박혜성
5219 김준수
5220 김태민
5221 전수영
5222 김현우
5223 임주선
5224 문상민
5225 강우진
5226 이준서
5227 정예찬
5228 김시원
5229 문상혁
5230 강민석
5231 정여준
5232 이동건
5233 이한율
5234 양지원
5235 김시후
5236 김준성
5237 신웅재
5238 김태우
5239 박병준
5240 이후석
5241 이창희
5242 신민성
5243 박현우
5244 방승혁
5245 방승이
5246 김호용
5247 김형준
5248 김민수
5249 김동현
5250 송채완
5251 송채운
5252 노명래
5253 신찬민
5254 오현성
5255 김준태
5256 정해찬
5257 김동헌
5258 조우진
5259 김시환
5260 최정원
5261 강태욱
5262 석은호
5263 장성모
5264 정상인
5265 박준영
5266 서민기
5267 정기수
5268 안세환
5269 김승연
5270 최우성
5271 박민규
5272 이수현
5273 이재훈
5274 이성욱
5275 고화랑
5276 김유중
5277 김유정